

AA - 8 - 44
24 3/4 - 1/3 3/4

南北國會會談 豫備接觸 會議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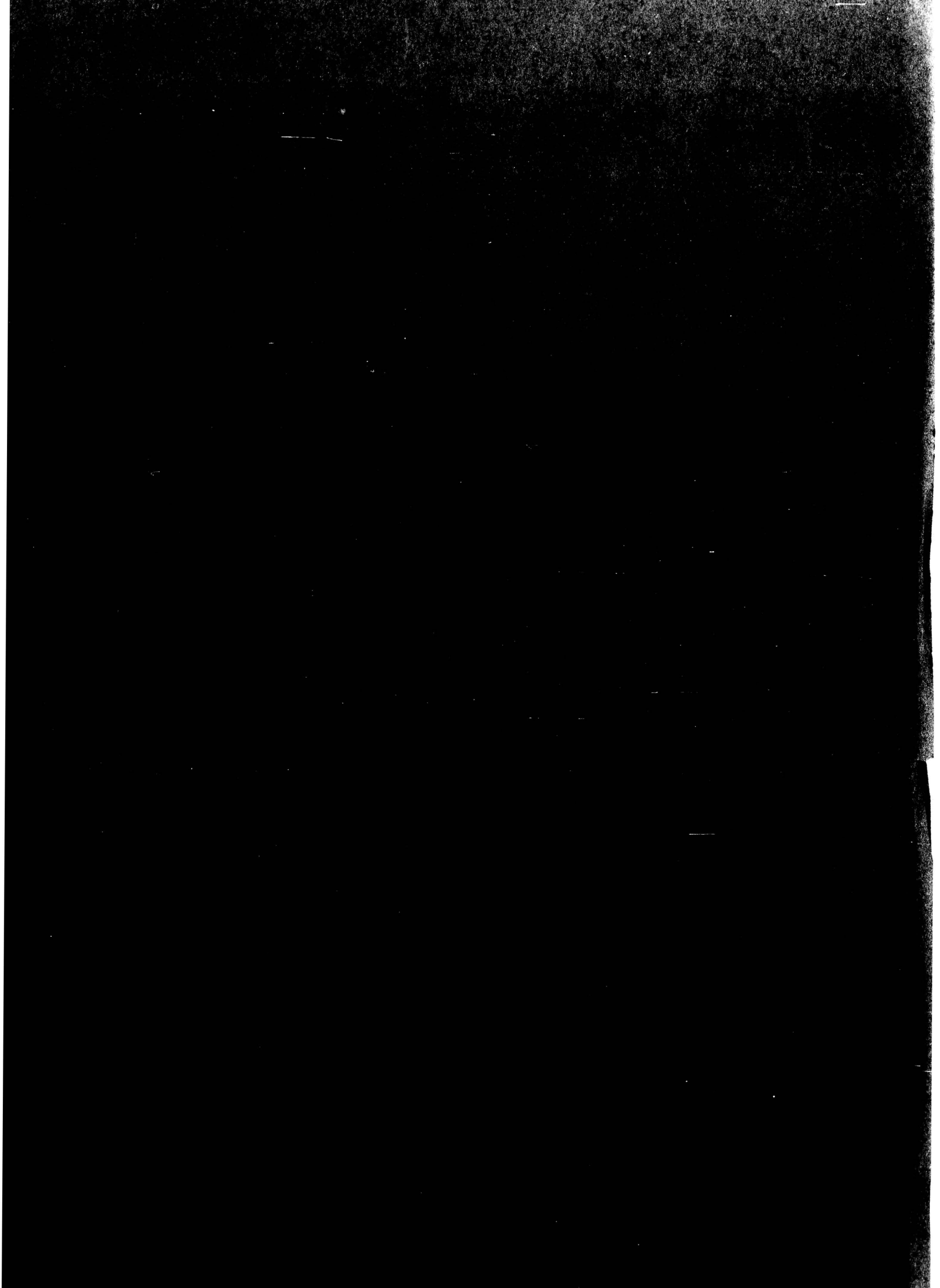
1988. 7



國 土 統 一 院

《 目 次 》

- I. 南北國會會談 第 1 次 豫備接觸 會議錄 3
- II. 南北國會會談 第 2 次 豫備接觸 會議錄 43



南北國會會談 第1次 豫備接觸 會議錄

日 時 : 1985. 7. 23 (火) 10:00-12:12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權正遠) : 반갑습니다.

北(전금철) : 반갑습니다.

權正遠先生, 이미 通知文을 통해서 名單交換이 있었지마는 이왕 만났으니깐…… 記者先生들을 위해서 人事紹介를 하고 지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南(權正遠) : 좋지요.

北(전금철) : 좋지요? 그쪽에서 먼저 하시지요.

南(權正遠) : 예, 우리側이 먼저 하시지요.

바로 옆이 丁時采 議員입니다. 全羅南道 海南·珍島가 選舉區이고 民主正義黨 所屬입니다.

그리고 우리 愼順範 議員 역시 全羅南道 麗水·光陽 여기가 選舉區이고 新韓民主黨 所屬입니다.

北(전금철) : 예.

南(權正遠) : 그리고 우리 朴寬用 議員, 釜山 東萊라는 곳이 選舉區이고 新韓民主黨 所屬입니다.

北(전금철) : 예, 東萊, 東萊……

南(權正遠) : 또 우리 姜慶植 議員은 역시 釜山出身이예요. 釜山鎮區라는 데가 있습니다. 釜山鎮區가 選舉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를 包含해서 民主正義黨 所屬이 돌이고 新韓民主黨 所屬이 돌이고 韓國國民黨 所屬이 하나이고 이렇게 代表團이 構成되어 있습니다.

北(전금철) : 우리側을 紹介할까요?

南(權正遠) : 예, 紹介하십시오.

北(전금철) : 저쪽에 계신 분이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이고, 最高人民會議 常務委員會 委員 주창준 先生입니다. 副團長입니다. 그리고 이제 勞動黨 所屬입니다. 政黨所屬…… 그 다음에 계신 분이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이고 우달호 先生입니다. 政黨所屬은 天道教育友黨입니다. 또 이쪽에 계신 분이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이고 립국렬 先生입니다. 政黨所屬은 朝鮮社會民主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계신 분이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이고 최장룡 先生입니다. 政黨所屬은 朝鮮勞動黨인데…… 제가 전금철이옵시다.

南(權正遠) : 예.

北(전금철) : 이렇게 하면 그저 人事紹介는 끝난 셈인데…… 오늘 참으로 날씨가 좀 무더운 것 같습니다.

南(權正達) : 콘서트가 되어서…… 좀 있기가…… 상당히 덥습니다.

北(전금철) : 어제 우리가 平壤에서 떠나올 때만 해도 대체로 기온이 32度 오르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北半部에서 32度라 하면 대체 1年 氣溫中 最高氣溫에 거의 接近한 것 같아요.

오늘 뒤편, 더 덥다는 말이 있는데…… 개성에 내려오니깐 역시 더 더웁니다.

南(權正達) : 우리가 듣기로는 북쪽에 많이 가물다가…… 가뭄들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最近에 와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多幸입니다.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北(전금철) : 금년도, 이제 최근 들어 아시겠지만 異常氣溫現象이 繼續되고…… 대체 금년도에 一部 地域은 冷하고 一部地域은 가물고……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 自然을 정복하고 支配하는 사람들이 能力의 限界가 좀 넓어져서…… 커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農事도 科學的 農法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니까 가을 農事 作況이 靚찮치 않겠는가 모두가 그런 생각입니다.

南(權正達) : 저는 주로 IPU 를 많이 다녔습니다. 國際議會聯盟, 거기에서 재작년인가…… 양형성 議長을 헬싱키에서 제가 만났어요. 잘 계신가요?

北(전금철) : 헬싱키요? 예, 잘 계십니다.

南(權正達) : 그리고 여연구씨하고, 손성필씨하고 다 副議長으로 계신가요?

北(전금철) : 예, 그렇습니다.

南(權正達) : 外國에서 자주 만나고 해서, 安否 좀 전해주시시오.

北(전금철) : 예, 감사합니다. 정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南(權正達) : 여연구 副議長께서는…… 先親께서 3日前에 제사날이 들었는데, 우리 會談이 앞으로 잘되가지고 서로 來往하면서 제사라든지, 한식·추석에도 省墓한다든지……

우리는 省墓를 하는데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參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北(전금철) : 예.

南(姜慶植) : 先親들께 제사를 합니까?

南(權正達) : 요즈음 제사같은것 지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北(전금철) : 아니, 權正達先生. 그것까지도 모르십니까? (雙方 웃음)

이야 우리 民族性인데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慣習인데……그거야 없앨 수 없지요.

南(姜慶植) : 우先生은 前에 南北關係로 會談場에 나오신적이 있습니까?

北(우달호) : 처음입니다.

南(姜慶植) : 처음입니까?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모여 마주앉으니 감격스럽습니다.

北(우달호) : 예, 감격스럽지요.

南(姜慶植) : 우先生 政黨所屬이 天道敎育友黨이라고 하셨는데, 天道敎徒이십니까?

北(우달호) : 예 그러므로.

南(姜慶植): 天道教精神이란 것은 人乃天 思想인데, 이런 傳來의 좋은 思想을…… (소음)

南(丁時采): 염先生께서는 基督教聯盟 일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北쪽에 教會가 많이 있습니까?

北(염국철): 예, 教會는 좀 있어요. (소음)

南(丁時采): 난 基督教人입니다. 저는 基督教 長老예요.

北(염국철): 예, 그러시군요. 나도 基督教徒입니다.

南(丁時采): 우리 韓國에는 基督教人이 約 1,000萬 정도가 돼요. 계가 있는 海南 한 군데만 하더라도 教會가 126個所나 됩니다.

以北에는 어떻게습니까? 거기에 聖經이 있습니까?

北(염국철): 예, 聖經 있지요.

南(丁時采): 아, 그래요? 우리 韓國에서는 最近에 讚頌歌를 教派 合同으로 해서 製作하였는데……

어떻습니까? 염국철선생님, 저는 地域이 珍島·海南인데, 어디가 選舉區입니까?

그쪽 代議員 出身地域이 있지 않겠습니까?

北(염국철): 예, 黃海北道입니다.

南(丁時采): 黃海北道, 우리는 한 選舉區民들이 20~30萬名이 넘는데 그쪽은 몇萬이 됩니까?

北(염국철): 3萬名 정도야요.

北(전금철): 요번 내려오면서 보니까 農事도 잘되고 있는데…… 自然에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비바람을 막고 땀흘려 가꾸어서 가을에 가면 풍만한 그런 田野를 마련하고 황금벌을 마련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이 會談이 政治會談을 열 하나의 豫備接觸이니까, 하나의 씨를 뿌리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멀지않아서 本會談도 마련하고 平和와 統一의 길에서 重大한 基礎를 닦아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南(權正遠): 우리 6千萬 同胞가 다 이 國會會談 豫備會談을 아주 注視하고 있는데 이 會談이 잘되어야 하지요. 責任이 참 무겁습니다.

北(전금철): 예, 그래요. 지금 世界의 國家가 發展하고 번영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歷史의 흐름 속에서 우리 民族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世代에 와서 이렇게 民族分裂이라는 悲運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 民族이 얼마나 우수한 民族입니까?

우리 民族은 歷史民族이요, 文化民族이요, 自由民主主義 民族이요, 아주 合理的인 民族이요, 땅밑에는 豐富한 資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民族이 결코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民族이다, 하여튼 우리 會議代表들의 責任이 무겁습니다.

南(權正遠): 이 國會豫備會談이 本會談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統一에 接近할 수 있는 그런 契機가 되도록 우리가 다같이 本會談이 成事되도록 努力하고 責任을 져야죠. 주先生께서는 실례지만 選舉區域이 어디십니까?

北(전금철) : 조양선거구입니다.

南(權正達) : 어디요?

北(주창준) : 조양선거구, 조양.

南(權正達) : 道가 어디……

北(주창준) : 平安北道입니다.

首席先生, 權先生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民族意識과 統一에 대한 基本意識을 가지고 討論하고 會議을 進行한다면 民族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南(權正達) : 우리 民族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 政治人들이 이렇게 마주앉는게 처음아니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 國會議員이란 말입니다. 政治人이니까, 다른 分野別 經濟 또는 赤十字 이런 會談하고는 좀 틀려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아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國際적으로 보더라도 역시 政治人들끼리 모이니까 다르며라 이런 雰圍氣를 만들어 나가면 잘되어 갈 겁니다.

北(전금철)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주앉는 것이 40年 歷史에…… 國會議員이 마주앉은 것은 처음이야요.

이렇게 國會議員들끼리 모여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理念에서야 北南 對話 歷史에 하나의 前進이요, 새로운 發展이 아닌가…… 이제 解放 40돐을 맞이하는데 우리 民族의 기대가 많고…… 그 어떤 찰나에 이런 國會議談이 마련되니까 内外의 關心이 다들 지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分裂된 것은 40年間이다, 이 期間에 역시 制度라든가, 理念이라든가에 差異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5,000年, 半萬年 歷史環境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民族的 共通性이 있지 않느냐…… 共通性, 이 共通性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貴重하게 여기고 이걸 最高 우위에 놓고, 이런 立場에서서 問題를 다루고 協議해 나간다면 우리가 合意點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南(權正達) : 좋은 말씀이죠.

民族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세워가지고, 역시 同一民族이다 이러니까……

北(전금철) : 그렇지요.

南(權正達) : 民族이라는게 무엇이나? 血統이 같고, 歷史가 같고, 또 文化가 같고 이렇게 다 同一한게 民族인데…… 우리가 血統도 같고 歷史도 같고 文化도 같은데, 40年동안 갈라져 있다보니 사실 서로 다른 環境속에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좁혀 나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會談을 잘 成功시켜서 한발짝 한발짝 接近하는 하나의 契機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歷史的인 이 모임이 정말 對内外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共同努力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北(전금철) : 좋은 말씀이야요. 民族이라는게…… 우리 民族이 言語가 같고 文化가 같고 관습 다 합쳐서 우리 民族의 하나의 徵表인데 그걸 깨뜨릴때야 깨뜨릴 수 없지요.

南(慎順範) : 지금 내가 車를 타고 오면서 느낀게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멀어졌지만, 鐵의 帳幕, 竹의 帳幕 이러는데……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이 板門店이 널판지 「板」字란 말이요. 이 발로 걷어차면 무너질 수 있는 널판지 板門店이 40年만에 接近이 되었다는 點에 우리 國會議員이나 政治人에게 責任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전금철) : 사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되는데, 이 오늘 무덤다고 했는데…… 정말 7 月の 무더위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렇지만 板門店에 들어서니까 더운 감도 있지만 차가운 감도 듭니다. 이게 다 긴장감이 조성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對決이 접한 곳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을 잘해서 좀 녹여서 平和의 새 봄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는가……

南(慎順範) : 그런데 원래 西歐사람들이 말예요. 오른손에 찻던 拳銃을 뽑아서 버리고 서로 武裝解除를 意味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악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악수를 했다는, 政治人, 政治하는 사람으로서, 國會議員으로서 악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걸 이미 우리 마음에서 그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立證하는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北(주창준) : 오늘 이 참, 권총도 떼어놓고 가슴에 품은 칼도 떼어놓고 그저 허심탄회하게 同族으로서 統一을 위해 우리 함께 討論합시다.

南(權正達) : 예, 허심탄회하게……

南(慎順範) : 우리 南北韓 國會議員들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意義가 있고…… 우리 團長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赤十字會談이나 經濟會談의 次元이 아니고 政治人의 立場에서 참으로 슬기롭게…… 나는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大韓民國側 代表라는 영광을 떠나 내가 만일 우리의 努力으로 서로 實例이나 우리 努力으로 統一國會가 이룩된다면 나는 한 國會議員의 立場이 아니고, 그 身分이 아니고, 統一國會 正門에 守衛가 되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心情으로, 아주 텅빈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北(주창준) : 예, 아주 좋은 感情입니다.

北(전금철) : 예, 아까 말씀에 좋, 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막이 아니냐, 이제 마주앉은 그 자체만 가지고서 그런 始初를 열어놓았는데, 우리 좀더 잘해서 實際로, 實際로 칼을 놓고 총을 놓고……

예, 그러면 구태여 서로 얘기 안하더라도…… 우리도 過去에 총을 놓는 問題를 協議한 적도 있고, 그때는 잘 안되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結實을 보아야 人民들의 기대에 보답하지…… 어떻습니까? 赤十字 같은 때도 지금 상당히 前進이 있지 않습니까?

과우간에 12年 동안 하자던 것을 이번에 서울에 나가서 우리 代表들이 8次會談이요?

한꺼번에 상당한 進展을 보았고, 요즈음에는 여기에서 實務協議했는데…… 對話만이 아니고 對話의 結果로 人道主義 問題를 實現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南(朴寬用) : 우리가 40年만에 만나가지고 총칼 그런거 서로 서로 버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方法, 그런게 제일 重要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돼요.

北(전금철) : 예, 사랑이 잘되자면 총을 놓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南(姜慶植) : 저는 選舉區가 釜山입니다. 釜山인데 이번에 南北國會代表도 되었다니까 釜山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激勵電話도 오고 이렇습니다. 정말 이번에 民族에게 失望을 주지않고 마음을 터놓고 信賴를 바탕으로 民族앞에, 정말 歷史앞에 責任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次元에서 國民들에게 이제는 뭔가 政治人으로서 한보따리뭉 안고 돌아가서 웃는 얼굴로 國民앞에 보고하고, 이런 過程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統一의 길이 한발자국씩 가까워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南(丁時采) : 오늘 우리 이 會談이 잘 되가지고 이 三伏 더위에, 오늘이 大暑입니다. 제일 더운날인데…… 이 콘서트장에서 앞으로 會談을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南(權正遠) :國會會談을 위해서 여기 집을 하나 지으면 어떻습니까?

北(주창준) : 平壤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죠 뭐……

赤十字도 왔다 갔다 하고 經濟도 왔다 갔다하기로 했는데 우리 뭐 때문에國會會談이 무엇 때문에 여기 집을 지어요? 왔다 갔다하지.

南(權正遠) : 施設이 不足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집을 짓고 앞으로 會談에서 서울·平壤을 왔다 갔다하면…… (소음)

北(주창준) : 여기서만 생각한다는 게 말이야…… 會談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同胞끼리……

南(權正遠) : 記者先生들이 여기 계시니까…… (소음)

南(姜慶植) : 무엇이든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北(전금철) : 40年 동안 얘기하지 못한 것을 이제 한꺼번에 다 쏟아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얘기하고 本問題 討論에 들어갑시다.

南(權正遠) : 그럼시다. 記者先生들이 많으니까 오늘 會談은 어차피 公開로 해야 되겠지요? 처음이니까……

北(전금철) : 그건 뭐 그쪽에서 하시는데로 합시다.

南(權正遠) : 記者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이 會談을 하기가 어려운데니까, 몇사람씩 代表로 더 기 두서너분씩 양측이 안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건물에서 나가시도록 해서……

北(전금철) : 오늘 會談은 公開로 하는게 좋겠죠?

南(權正遠) : 公開로 하십시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北(전금철) : 그렇게 합시다. 제 생각으로는 公開로 해도 從來의 對話들의 慣例에 따라서 이 場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記錄을 위해서도 여기 速記요, 錄音이요, 錄音도 여기 있게되고 우리 隨員되는 분들도 여기 各各 雙方이 네분이니까, 여덟분 그래서 앉아 活動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문이 열려있으니까 듣도록 하고, 저 뒤 건물에 마이크를 連結시켜다 듣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南(權正達) : 그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北(전금철) : 그래서 記者先生들이 일단 여기서 나가시도록, 그러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南(權正達) : 그렇죠. 그리고 發言하는 問題는 서로 首席代表가 양해해서 우리 열사람이니까 自由스럽게 얘기를 하게 양쪽 首席代表의 양해하에 서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進行하는게 어떻습니까?

北(전금철) : 그게 좋습니다. 發言順次 問題인데, 權正達 首席代表 先生 提議가 發言은 자유스럽게 하자, 그런데 會議秩序를 위해서 團長의 양해하에서 協議해서 이번에는 누가하자 누가하자 이렇게 調節하자 이거지요?

南(權正達) : 그렇지요.

南(慎順範) : 어떤 規格보다도요…… 우리 政治人답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는게 좋죠.

北(전금철) : 좋습니다. 그럼 權正達 首席代表先生, 오늘 會議에서 첫얘기 問題인데…… 아무쪽에서 해도 되는데, 혹시 제가 먼저하는데 反對없으시다면 제가 합지요.

南(權正達) : 全先生께서 꼭 먼저 하시겠다면 먼저하세요. 이게 政治會談인데, 融通性을 가지고 해야지……

北(전금철) : 그럼요, 꼭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만 제가 먼저하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워낙 이 자리가 좁아 놓아서……

南(權正達) : 예, 그래서 더 덥고요…… 그쪽에 天道敎 敎徒들이 많은가 보지요?

北(엄국철) : 예, 우리 憲法에 公民들이 宗教를 자기들이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宗敎人들이 全般的으로 좀 있습니다.

南(權正達) : 우리쪽에서는 天道敎에 敎領이 있어요, 敎領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敎主格이지요.

北(전금철) :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南(權正達) : 예.

(北側 基調發言)

代表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계와 世界人民들의 커다란 關心과 期待속에서 北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使命을 안고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隔斷되어있던 北과 南사이에 최근 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에 이어 國會會談 豫備接觸

까지 마련되게 된 것은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和解를 이룩하고 平和統一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데서 또 하나의 前進으로 되는 肯定的인 事態發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나라가 分裂된 후 40년만에 처음으로 權威있는 北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接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랜 세월 分裂의 苦痛과 戰爭의 不安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平和와 平和統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오늘의 接觸이 實現되어 온 겨레에게 平和와 統一에 대한 크나큰 期待를 안겨주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南側 代表들을 열렬히 歡迎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미 闡명한 바와 같이 오늘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和解를 도모하고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平和統一의 前提를 마련하는 것은 온 民族의 死活的 利益과 관련된 重大한 問題입니다.

이것은 國土兩斷의 悲劇을 하루빨리 終熄시켜야 할 民族史的 要求로 보나 造成된 情勢의 緊迫性에 비추어보나 時急히 해결되어야 할 매우 切實한 民族的 課業입니다.

오늘 우리 겨레는 나라의 分裂로 인하여 일찍이 없었던 災難과 悲劇을 겪고있고 이 가슴아픈 受難의 歷史는 벌써 마흔번제의 年輪을 새기고 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은 半萬年의 悠久한 民族史의 兒地에서 보면 길지 않을런지 몰라도 갈라진 民族의 悲劇과 苦痛의 眼目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千秋와 같이 긴긴 세월입니다.

半世紀가까이 지속되고있는 國土兩斷은 民族의 血脈을 끊어놓고 민족내부에 뿌리깊은 不信과 誤解를 쌓아놓았으며 하나의 地脈으로 잇닿아있는 北과 南을 한없이 멀리서로 隔離시키는 불행한 後果를 產生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오늘의 이 受難은 날을 따라 짙어가고있는 戰爭의 검은 구름으로 하여보다 嚴重한 災禍에 이어질 危險마저 없지 않습니다.

軍事分界線을 사이에 두고 雙方의 甚大한 武力이 膨膨히 맞서고 있고 온 강산이 항시 準戰時狀態에 놓여있는 우리 나라의 現實態는 사실상 戰爭의 문어구에 이미 한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입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戰爭이 터지면 犧牲당할 것은 우리 민족뿐이며 荒廢化될 것도 아름다운 우리 강토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러한 破局的 事態를 막아야 하며 分裂의 悲劇과 戰爭의 危險속에 놓여있는 우리 民族앞에 平和와 統一의 새 出路를 열어놓아야 할것입니다.

더우기 올해로 말하면 歷史的인 祖國解放 40돐이 되는 慶事스러운 해입니다. 지금 온 겨레는 뜻깊은 올해에 北과 南의 관계가 改善되고 平和와 統一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밝은 展望이 열리게 되기를 적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根本利益과 겨레의 懇切한 念願에 符合되게 나라의 鞏固한 平和와 平和統一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면 먼저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和解와 信賴를 도모하고 緊張狀態를 緩和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北과 南사이에 뿌리깊은 誤解와 不信이 있고 緊張이 激化되고있는 狀態에서는 우

리 民族이 平和롭게 살수 없으며 平和統一을 위한 길에서 한걸음도 前進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은 거래의 死活的 利益이 판가름 되고있는 때에 우리는 同族끼리 反目하고 對決하는 것과 같은 불행한 事態를 더이상 持續시키지 말아야 하고 民族的 和解와 信賴와 團結을 위한 새 出發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民族의 興亡과 관련된 이 切實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先驅者가 되고 主役을 담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의 政事에 直接 參與하고 있는 北과 南의 政治人들이라고 認定합니다.

北과 南의 모든 政治人들이 民族共同의 偉業을 위하여 힘을 합쳐 나설 때 의심할 바 없이 이 땅우에는 民族的 和解와 信賴와 團結의 새 轉機가 마련되고 우리 民族앞에는 鞏固한 平和와 平和統一에로 가는 참다운 再生의 活路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立場과 信念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最高人民會議 第7期 第4次會議는 지난 4月 9日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信賴를 도모하며 나라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기 위한 實際的 措置로서 北南國會會談을 열고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할 것을 貴側 國會에 정중히 提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提案은 現時期 우리나라에서 焦眉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緊張緩和 問題, 平和保障 問題를 실질적으로 解決할수 있는 實踐的 方途를 명백히 提示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北과 南사이에 存在하는 뿌리깊은 誤解와 不信은 서로 相對方을 힘으로 위협하는 危懼心에서 產生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反目과 對決이 빚어지고 緊張이 造成되고있는 것입니다.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의 發表는 北과 南사이의 不信과 對決을 解消하며 다가오는 戰爭을 막고 平和를 保障하는데 커다란 寄與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提案은 또한 緊張緩和와 平和保障問題를 바로 풀어나갈수 있는 適中한 協商方式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緊張緩和와 平和保障問題는 민족의 運命과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것은 은 거래의 利益과 直結되어 있는 羈族的 性格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羈族的 性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北과 南의 광범한 意思를 모을수 있는 協商 마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最高人民會議와 南朝鮮國會는 현실적으로 各 政黨出身의 政治人들을 網羅하고 있는 것만큼 北南國會會談은 緊張緩和 問題를 어느정도 民族의 意思와 念願에 맞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이고 權威있는 협상마당으로 될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發起는 貴側의 意思도 반영한 公정한 提案으로 됩니다.

貴側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緊張緩和 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여러차례 主要하여왔고 최근에만 하여도 『南北對話는 어떤것이든 平和와 和合의 廣場으로 活用할 것』이라고 公式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貴側의 이러한 주장과 立場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실로 우리의 提案은 우리 민족에게 執拗하게 강요되는 戰爭의 災難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풀

아내고 和睦과 平和롭게 살아가려는 온 민족의 확고한 意志를 집대성한 愛國的 發起로 됩니다.

이 平和提案이 실현되면 우리는 불행했던 40년간의 對決의 歷史에 終止符를 찍고 우리 나라에서 平和와 平和統一의 앞길에 새로운 局面을 열어나 가게 될 것입니다.

이 提案이 실현되면 지금 진행되고있는 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에 鼓舞的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高位級 政治會談을 마련하는데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北南國會會談을 열고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할데 대한 우리의 提案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正當한 제안입니다.

우리의 이 提議와 관련하여 貴側은 이미 지난 6월 1일부 回答便紙에서 不可侵 問題를 國會會談에서 다루는것은 적당치 못하다는 立場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貴側의 이러한 立場이 우리의 4월 9일부 편지에 대한 理解의 不足에서 오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에서 不可侵問題와 관련하여 國會會談에서 討議할 範圍와 雙方 當局會談에서 取扱할 範圍를 명백히 區分하였습니다.

말하자면 國會會談에서는 쌍방이 不可侵의 必要性和 意義를 인정하고 雙方當局에 不可侵宣言의 채택을 一任하고 이에 따라 雙方 當局者會談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義務를 지니는 不可侵宣言을 채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國會會談에서 발표할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은 北과 南이 다시는 싸우지 않고 平和와 統一에로 나갈것을 다짐하는 法的 및 政治的 宣言으로 된다면 當局者會談에서 채택하게 될 不可侵宣言은 실제적으로 軍事的 緊張狀態를 풀고 전쟁을 拋棄할데 대한 구체적 의무를 담은 條約과 같은 合意文件으로 될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전지에서 볼때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것은 國會의 一般的 機能과 그 성격에 符合되는것으로서 당연히 國會의 所管에 속하며 또 거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北과 南, 해외의 모든 同胞들과 平和를 사랑하는 世界人民들은 이 豫備接觸으로 시작되는 平和에로의 첫 걸음이 멀지 않아 國會會談에로 이어지고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人民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北南國會會談이 빨리 열리는가 늦게 열리는가 하는것은 이 자리에 마주앉은 우리 雙方 代表들이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합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같이 民族앞에 지닌 무거운 責任과 使命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 힘을 합쳐 이 豫備接觸을 짧은 시일안에 순조롭게 結束지음으로써 光復 40週年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北南國會會談을 마련해서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어야 할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豫備接觸이 첫 걸음을 떼는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期待를 표시하면서 國會會談을 개최하는데서 제기되는 實務節次問題들에 대한 우리의 意見을 말하려고 합니다.

國會會談과 관련한 實務節次問題라고 하면 會談形式과 代表團 構成問題로부터 會談場所와 時日, 議題, 會談運營方法 그리고 代表團의 來往節次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나는 이제부터 차례로 이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밝히려고 합니다.

(1) 會談形式 問題에 대하여

먼저 우리는 國會會談을 어떤 形式으로 하겠는가, 다시 말하여 國會連席會議 形式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國會代表會談 形式으로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協議하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資側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側은 이번 제안을 내놓으면서 國會會談을 雙方 國會連席會議 形式으로도 할수 있고 國會代表會談 形式으로도 할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혔습니다.

連席會議라고 하면 서로 같은 權限과 義務를 지니고 우리 最高人民會議에 資 國會議員들이 連席하고 資 國會 本會議에 역시 우리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이 連席하는 方法으로 會談하자는 것이며 國會代表會談은 各 政黨出身 國會議員들을 망라한 적당한 수의 代表團을 구성해서 會談을 진행하는 方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두가지 國會會談 形式 中에서 어느것이나 다 좋다는 意見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두 가지 會談形式 中에서 되도록이면 連席會議 方式을 취하는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명백한 일이지만 會談을 雙方 國會 連席會議 方式으로 하면 各黨, 各派 出身 國會議員들이 다 수 참가하게 되기때문에 對話를 보다 民主主義的 基礎우에서 진행할 수 있고 問題討議에 各계 各층의 外사를 폭넓게 反映할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連席會議를 하게 되면 우리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 資側 國會議員들이 서로 광범히 接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고 이를 통하여 北과 南사이에 互相 理解와 信賴를 도모하고 民族的 和解와 團結을 촉진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側面에서 보면 적은수의 國會代表들이 참가하는 國會代表會談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各계층의 意思를 反映하는 면에서나 國會議員사이의 接觸과 交流를 圓滑히 해나가는데 있어서 一定한 制限性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連席會議 方式은 어느모로 보든지 國會代表會談 形式 보다는 훨씬 더 合理的인 會談方式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國會代表會談도 無妨하지만 이왕이면 國會連席會議를 가지는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2). 代表構成 問題에 대하여

北南國會會談은 나라가 分裂된지 40年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國會議員들의 會談이고 또 나라와 民族의 運命과 關聯되는 重大한 問題를 討議하는 매우 意義가 큰 政治會談이라고 말할수 있지요.

따라서 國會會談 代表들은 會談의 重要性和 意義 그리고 討論問題의 性格에 비추어서 各界의 意思를 充分히 反映할수 있고 협상을 能率的으로 進행할수 있도록 구성하는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連席會議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國회의원 全원이 連席하면 계인 理想的인수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쌍방 國회의원 定員數에서 차이가 있고 또 會談運營에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連席하는 측에서 약 100명 정도의 各 政黨出身 國會議員들을 選출하여 상대측 國회 본회의에 참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連席하는 側의 國會議員들은 招請側의 國會議員들과 同等한 權限과 義務를 지니고 贊成權과 決議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民主主義가 충분히 發揚될수 있고 합의된 문제의 履行을 위한 擔保도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國회대표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귀측에 보낸 편지에서 제기한대로 각기 國會議長이나 副議長을 團長으로 하여 各 政黨출신 國會議員들로 代表단을 構成하되 지금 北과 南의 國회에 참가하고 있는 政黨數를 고려하여 9~11명의 人員으로 構成하는 것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代表단에 同行할 隨員과 記者들의 규모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國會連席會議 경우나 國會代表會談의 경우를 莫論하고 隨員은 20명 정도, 기자는 50명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3) 會談場所 問題에 대하여

雙方 國會連席會議을 하는 경우는 자연히 淸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기 마련이고 國회대표회담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회담을 淸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생각입니다.

첫 國會連席會議나 國會代表會談을 하게 될 장소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淸양에서 먼저 회담을 하고 다음 서울에서 하기를 희망합니다.

(4) 會談議程에 대하여

國會會談에서 어떤 問題를 討議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쌍방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통하여 명백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북과 남사이의 關係를 개선하기 위하여 쌍방 國회대표회담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때 대한 問題를 討論할것을 귀측에 제의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이 問題가 現時期 우리나라에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是의 問題이며 民族的 和解와 信賴를 도모하고 淸와 南의 基礎를 마련하는 데서 나서는 가장 切實한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침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때 대한 問題는 마땅히 國회대표회담의 最優先的인 問題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國會會談에서 切實하고 眞實하게 제기되는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때 대한 問題

제를 토의하는 것과 함께 귀측이 주장하는 統一憲法 制定問題도 討議하는데 반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견측은 어디까지나 雙方接觸인 것만큼 어느 一方의 意見만 尊重되고 絶對化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美風이 發揚되어야 합니다.

이런 立場으로부터 우리는 實例이 주장하는 문제가 不可侵에 관한 문제와 같이 緊迫한 것은 아니지만 雅量과 誠意를 보여 그것도 國會會談에서 같이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바입니다.

(5) 會談運營 方法에 대하여

國會連席會談을 하는 경우나 國會代表會談의 경우나를 막론하고 討議案件의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會談을 能率的으로 運營해 나가기 위하여 원칙상 非公開 會談으로 하고 필요할 때 雙方의 合意에 따라 公開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報道는 各其 便利한대로 하고 合意된 事項은 종전 대화의 慣例대로 共同合意文件 形式으로 作成 發表하도록 하면 될것같습니다.

會談記錄은 錄音과 錄音, 速記 등 各其 便利한 대로 하며 招請者側은 상대측 지역에 錄音(텔레비죤) 中繼線을 保障하자 하는 것을 아울러 제기하는 바입니다.

(6) 來往節次 問題에 대하여

國會會談을 平壤과 서울에서 하게 되면 회담관계로 北과 南을 來往하게 되는 人員들의 身邊安全을 擔保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慣例대로 雙方 關係當局에서 身邊安全擔保聲明을 먼저 發表하고 그 聲明文本을 事前에 서로 交換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來往人員들의 身分을 확인하기 위하여 代表들은 信任狀을 제시하고 그밖의 隨員이나 記者들은 身分證明書를 携帶하도록 하자, 軍事分界線을 通過할 때에는 寫眞이 添付된 名單을 3日前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 명단에 根據하여 서로 확인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 便宜保障 問題에 대하여

代表團과 記者들이 相對側 地域에 가있는 기간에 提供되는 交通手段과 宿食을 비롯한 일체 便宜提供은 招請者側에서 無料로 奉仕하도록 하자는 意見입니다.

(8) 連絡手段 問題에 대하여

會談을 위하여 雙方 國會사이에 通信連絡을 가질수 있도록 國會會談專用으로 平壤과 서울사이에 直通電話를 連絡시켜서 運營하도록 하자.

(9) 第1次 國會會談 날짜와 會談週期 問題에 대하여

지금 北南國會會談에 대해 온 세계인민들의 관심과 期待가 매우 큼니다.

우리는 이러한 内外人民들의 기대와 念願에 맞게 國會會談의 開幕이 따르면 마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立場으로부터 우리는 國會代表會談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第1次會談을 이 豫備接觸이

끝나는 때로부터 1個月안에 열며 連席會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겠으니까 이때는 豫備接觸이 끝나는 때로부터 2個月안에 하자.

會談週期는 國會代表會談을 할 때에는 雙方이 合意하여 定하고 그때 그때 정하자. 連席會議을 하는 경우에는 雙方에서 각각 1년에 2번정도하여 총 4번 정도 하되 한번 會談을 1週日 程度 하자 이런 뜻입니다.

國會會談을 開催하기 위한 實務節次問題에 대한 우리의 意見은 대체로 以上과 같습니다.

나는 貴側의 意見을 듣고 서로 協議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南: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貴側에서 發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우리側에서 基調發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發言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마는 基本的인 우리의 立場을 담은 發言文을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側 基調發言)

北韓 最高人民會議 代表 여러분!

나는 오늘 國內외의 非常한 關心속에 南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첫 豫備接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大韓民國 國會를 代表하여 眞心으로 歡迎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祖國解放 40년이 되는 올해에 와서 처음으로 南北의 國會議員들이 마주앉아 對話를 갖게 된 것은 晚時之歎의 感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接觸이 나라와 民族의 將來를 위해서 甚多 幸한 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온 겨레 앞에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代表團은 온 겨레의 統一念願을 안고 오늘 아침 이곳 板門店으로 달려오면서 3千里 錦繡江山을 가로지른 우리 겨레의 깊은 分斷의 傷處를 다시한번 目擊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엄청난 速度로 變化하고 發展하는 새로운 時代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곳 板門店에는 아직도 6·25 同族相殘의 不幸했던 現場이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고 우리에게 平和와 統一이 얼마나 所重하고 또 時急한 問題인가를 더욱 切實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祖國光復 40周年을 맞는 올해야말로 民族分斷의 아픔을 克服하고 이땅에 鞏固한 平和와 統一의 기쁨을 마련하는 歷史的인 轉機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한 南北國會會談이 하루속히 開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最高人民會議 代表 여러분!

우리는 비록 南北으로 갈라져 살고 있으나 같은 民族으로서 하나의 統一된 祖國을 指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南北韓 사이에는 平和와 統一問題에 있어서 根本的인 見解差異가 存在하고, 우

리가 對話를 통해서 넘어야 할 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금 南北韓 사이에는 6·25 戰爭의 총소리가 멈춘지 30餘年이 지났으나 여전히 對決關係가 尖銳化되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든지 또 다른 戰爭으로 爆發될 수도 있는 危險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극히 非正常的이고도 危險한 關係는 계속 南北關係를 緊張시키고 우리의 平和統一努力을 沮喪할 뿐 아니라 最惡의 경우에는 우리 民族의 生存을 威脅하는 深刻한 問題로까지 發展될 수 있습니다.

貴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再昨年 「버마」에서 發生한 同族殺傷의 慘劇은 우리 民族의 分斷과 對決相이 빛은 엄청난 事件으로서 全世界에까지 커다란 衝擊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事件이 나라의 밖에서나 안에서 절대로 再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貴側 當局의 反省과 納得할만한 措置가 있기를 期待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자리에서 지난 일을 파헤치고 잘잘못을 시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버마」事件을 喚起시키는 뜻은 앞으로 그러한 民族自害行爲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歷史的 經驗과 주어진 現實을 바탕으로 모든 問題를 對話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科學·技術의 發展, 生産의 革新과 大規模化, 그리고 急速한 交通·通信의 發達로 말미암아 새로운 理念과 世界秩序를 摸索해야 될 새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民族의 現實問題와 將來問題를 解決하는 열쇠는 結局 우리 自身の 智慧와 力量속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南과 北이 서로 相對方의 政治體制와 社會制度를 敵對視하거나 干涉하려는 態度를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相對方을 敵對視하거나 干涉하는에서 不必要한 緊張과 不信이 생겨나고 또 對話의 障礙가 造成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經驗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하고 信賴를 回復하는데 서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南北間의 緊張과 不信은 다름아닌 對話와 交流의 斷絶에 基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南北韓 사이에 可能的 通路를 열고 對話와 交流를 增進하려고 애써온 것은 바로 여기에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貴側 水災物資의 引受를 契機로 새로운 南北接觸이 再開되고 특히 雙方間에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것을 多幸으로 생각하며, 中斷된 南北體育會談도 早速히 열리기를 苦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會談이 잘 進陞되어 南北間에 1千萬 離散家族들의 自由로운 往來와 相逢이 이루어지고 經濟·體育 等 諸般分野에서 活潑한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이야말로 實踐을 통해서 緊張緩和와 信賴造成의 成果를 쌓아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南北韓의 責任있는 當局間에 緊張緩和와 信賴造成을 促進하는 實質的 措置를 講究하기 위한 會談이 빨리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是處는 緊張緩和와 信賴造成 問題가 말과 宣稱으로 끝나지 않고 實踐을 通해서 確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南北間에 戰爭再發을 防止하고 緊張을 緩和하여 平和를 定着시키는 일은 雙方의 責任있는 當局이 協議하여 時急히 解決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大韓民國 國會는 지난 6月 1日 이러한 方針을 滿場一致로 決議·採擇하여 貴側에 齎翰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이러한 一貫된 立場에서 우리 政府는 이미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提議했으며 거기서 다 種 議題로서 緊張緩和와 戰爭再發 防止를 위한 措置를 講究하는 問題를 提示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政府는 包括的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闡明하면서 平和的 南北關係의 土壤을 마련하는 實踐的 措置로서 모든 形態의 武力 및 暴力行使 止揚, 相互 內政不干涉, 軍備競爭 止揚 和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는 것 등을 包含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을 締結할 것을 提議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政府는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關係改善을 促進하기 위하여 具體的인 「20個 示範 實踐事業」을 主張해 왔습니다.

따라서 貴側이 眞實로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爲하여 不可侵宣稱을 採擇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우리 政府의 提議에 貴側 政府當局이 呼應해 나오도록 促求하는 것이 合當할 것입니다.

大韓民國 憲法은 行政府, 立法府 그리고 司法府가 各其 固有한 權限을 行使하겠끔 3權分立原則 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戰爭과 平和에 關한 問題는 行政府가 全權을 가지고 責任있는 相對 政府當局과 協商해왔 으며 그 結果 協定도 締結하고 또 그것을 執行해 왔습니다. 不可侵 問題도 實權을 가지고 協商을 할 수 있는 政府當局者가 責任을 가지고 協議해야 마땅하며, 그 結果 어떤 合意書나 協定이 締結 된다면 우리 國會는 當然히 그것을 審議하고 批准의 同意與否를 決定하게 될 것입니다.

統一國家를 樹立하기 위해서는 統一憲法의 制定이 어느 무엇보다도 要請된다는 것은 새삼 強調 할 必要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南과 北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아래 벌써 40年을 살아온 우리가 하나로 結合되기 위해서는 統一國家의 基礎가 되는 大憲章이 必要하며 그 大憲章이 바로 統一憲法인 것입니다.

統一憲法은 어떠한 內容의 統一祖國을 樹立할 것인가 하는 統一祖國의 尙寫眞을 밝히는 同時에 統一된 祖國이 나아가야 할 方向과 民族의 進路를 提示하는 것입니다.

또한 統一憲法은 앞으로 南과 北사이에 平和統一로 나아가갈 基本方向을 設定하며 平和統一을 위 한 具體的인 課業을 提示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南北이 함께 統一憲法 制定事業에 着手하는 것 그 自體가 바로 南北 相互間에 民族 的 信賴와 信義를 두터이 하는 歷史的 轉機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南北 雙方이 다같이 祖國統一問題를 기어코 平和的으로 解決하겠다는 意志를 온 民族과 全世界 앞에 밝히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分斷 40년이 되는 지금까지 平和統一努力을 結集시킬 수 있는 共同의 目標 나 共同의 章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現實을 勘案할때 統一憲法 制定事業을 推進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입니다.

統一國家를 이미 形成한 나라들의 그 첫걸음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共通적으로 憲法制定會議의 召集으로 나타났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認定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南北韓의 國民을 代辯하는 南北 國會議員들이 參加하는 會談에서 統一憲法 制定을 위한 具體적인 方案을 主導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祖國統一을 念願하는 民族과 歷史앞에 내놓는 것이 分斷 40年 오늘을 사는 南北 國會議員들에게 주어진 責務라고 생각합니다.

統一憲法 制定事業은 어느 한쪽만의 努力으로는 不可能하므로 南北國會會談이 열린다면 雙方 住民들을 代表하는 하나의 協議機構를 構成하여 거기서 具體적으로 討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982年 1月 22日에 闡명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속에서 이에 관한 構想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그 主要 骨子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雙方 住民의 뜻을 代辯하는 南北의 代表로 假稱 「民族統一協議會議」를 構成하여 거기에서 統一憲法을 起草하여 이 統一憲法을 南北韓 全域의 自由로운 國民投票를 통해서 確定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憲法을 土臺로 하여 自由總選舉를 實施하고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構成하자는 것입니다.

南北의 協議機構가 마련되면 雙方은 우리 民族 全體가 希求하는 祖國統一의 未來像을 提示하고 統一憲法 起草에서부터 統一國會와 統一政府 樹立까지의 育寫眞을 提示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統一憲法 制定의 길을 트는 것이야말로 統一問題 解決의 길을 찾는 根本적이고도 核心的인 課題이며 이는 실로 民族史의 새로운 章을 여는 契機가 될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立場에서 나는 南北國會會談 開催問題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側의 提案을 내놓는 바입니다.

첫 제, 雙方은 온 겨레의 統一念願에 副應하여 南北國會會談을 빠른 時日안에 開催하기로하며, 具體적인 日時는 이 豫備接觸의 마지막 段階에서 協議·決定한다.

둘 제, 雙方은 南北國會會談을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한다.

세 제, 南北國會會談에 參加하는 雙方의 代表團은 各各 11名으로 構成하며 雙方 首席代表는 國會議長이 指名한다.

네 제, 南北國會會談의 議題는 「統一憲法을 起草하기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 機構를 構成하는 問題와 이에 따른 統一基盤 造成에 必要한 事項」으로 한다.

다섯제, 南北國會會談 推進에 따른 諸般 業務連絡을 위하여 雙方間에 國會會談用 直通電話를 設置·運營한다.

여섯제, 其他 南北國會會談 進行에 必要한 節次는 雙方의 協議下에 定한다.

나는 以上과 같은 여섯個 項의 우리側 提案에 貴側이 同意함으로써 이 豫備接觸이 빠른 時日안에 妥結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고 雙方의 基本立場을 밝히게 되는 만큼 서로 좋은 霧圍氣 속에서 相對方의 意見을 眞摯하게 研究·檢討하여 内外가 期待하고 있는 南北國會會談이 早速히 實現되도록 誠意있는 努力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北: 네, 다하셨습니다?

南: 예, 이것을 교환을 해야 되겠지요?

北: 교환, 뭐, 합시다. 나중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隨員되는 분들이 드릴겁니다. 그쪽에서도 주십시오.

南: 우리 隨行員들도 역시 저쪽에 줘야지요. 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北: 더 말씀하실것 없습니까?

南: 10페이지 중간부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北: 아, 우리 얘기?

南: 10페이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北: 내용이 됩니까? 10페이지……

南: 두번 읽으셨지요?

北: 아, 그거 말입니까? 그럼 그것이 9페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國會會談에서 우리가 發表하자는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이 대체로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윤곽을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會談에서는 雙方이 不可侵의 必要性和 意義를 認定하고 그래서 雙方當局에 不可侵宣言의 採擇을 일임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雙方當局者 會談에서는 보다 具體적이고 實質적인 義務를 지닌 그런 不可侵宣言을 採擇하는 問題를 解決하도록 하자 그겁니다. 되겠습니까?

南: 아까 그 焦眉라고 말씀하시는데, 焦眉란 무슨 말씀입니까?

北: 그쪽에선 그 얘기 안씀니까?

南: 글썽, 우리는 理解가 잘 안가는데……

北: 焦眉, 焦眉……아주 가장 先次的인 問題다 가장 緊요한 問題……

南: 우리 차 한잔씩 드십시오, 드시고……

南: 차나 한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南: 여러가지 意見이 많이, 接近되는 部分이 많이 있습니다.

北: 예, 예.

南: 그래서 우리가 共通點을 찾아가지고……

北: 그렇지요.

南: 漸次的으로 協議를 해나가려는 좋은 結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北: 한가지 조금……

南: 예를 들면 代表團 構成問題라든가 場所問題라든가 또 日時問題라든가 또 會談運營 方法問題라든가 여러가지 節次上의 問題, 이런 것들은 意見이 大部分 接近이 되고 共通點을 우리가 많이 찾을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주로 議題問題 내지는 會談形式에 關한 問題, 이런 問題에 조금 우리가 서로 差異가 있습니다.

北: 네.

南: 우선 全선생님 말이죠, 直通電話 架設하는 問題는 이것을 合意를 해서 實務者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架設한다든지 하는 問題로 結論을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北: 네, 全般的으로 제가 綜合해서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그쪽 提案問題에 대해서 明白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번째 되겠는데, 國會本會談에서 어떤 問題를 討論하겠는가?

南: 討論問題?

北: 議題지요. 거기서 이제 民族統一憲法制定을 위한 協議機構 構成問題와 이에 따르는 統一基盤造成問題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 說明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南: 그것을 제가 조금 說明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雙方이 무엇보다도 緊張을 緩和하는 問題가 重要하다는 것은 共通的인 意見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相互信賴를 構築하는 問題, 信賴를 圖謀하고 信賴를 增進하는……서로 믿도록 돼야 됩니다 雙方이 말이죠. 信賴를 構築하는 問題 이 問題가 제일 重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理解가 增進되고 서로 對話가 오고가고 해서 여러가지 問題를 解決해 나갈수 있는 좋은 雰圍氣를 造成할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예를들면 貨側 最高人民會議과 또 우리側의 國會와 相互交流를 한다든가 國會議員間의 交流 또는 서로 代表團을 構成해 가지고 交換하면서 서로 訪問하는 일을 推進함으로써…… 우리가 國會會談이니까, 國會議員間에 相互信賴를 우리가 넓혀나가고 信賴를 增進해 나갈수 있는 이런 길이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信賴를 우선 좀 回復할 수 있는 方法으로 그런 여러가지 與件을 만들어나가자 하는 趣旨에서 그런것도 있을수가 있고. 또 예를들면 우리가 政治人입니다, 國會議員이고…… 그런데 지금 現在 經濟會談이 이루어지고 있고 赤十字會談이 이루어지고 있고, 體育會談도 이제 곧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機能問題로 여러가지 會談이 이루어지고 또 分野別로 이렇게 會談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會談들이 잘 成功的으로 되어 나갈수 있도록 우리 國會 次元에서 또는 政治的인 次元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問題, 이런 것 등은 會談이 잘 進展되어 가지고 서로 좋은 結實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信賴를 우리가 構築할 수 있고 緊張緩和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雰圍氣 내지는 與件을 造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서 이런 問題들을 包含해 가지고 統一基盤을 造成하는데 必要한 事項들이다 이렇게 便紙 內容에다 明示를 했습니다.

그러면 說明이 되었습니까?

北: 네, 그쪽에서의 案을 綜合해 놓고 보려는 그저 다른것도 얘기할게 많겠습니다만 크게 두어가지 指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그쪽에서 國會會談에서 協議할 內容으로서 統一憲法 制定問題, 그와 關聯된 機構構成問題 그리고 이에 따르는 基盤造成問題다. 이걸 討論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提案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發表 問題는 그건 뭐 그쪽 國會의 機能 이런것을 考慮해볼 때 할 수 없다……

南: 그것을 내가 說明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實例하고 우리하고 制度的인 差異가 있는 點이 그런 點이라고 생각합니다만, 不可侵宣言 問題를 우리 國會會談에서 共同發表를 하고 또 아까 全先生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條約과 같은 合意文件을 만드는데 當局者會談에 가서 다시 이것을 採擇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國會會談에서 不可侵宣言을 共同發表하고 또 當局者會談에서 이것을 採擇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우리는 體制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해나갈 경우에 너무 過程이 複雜하다. 왜 그러냐 하려는 國會會談에서 不可侵宣言을 共同發表하고 그 다음에 當局間의 會談에서 이것을 採擇하고 그리고 난뒤에 우리 政府當局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이것이 다시 國會로 넘어와서 일종의 條約이나 協定으로 宣言·合意한 內容이니까 이것의 批准·同意를 위한 또 討論이나 協議를 거쳐가지곤 國會에서 또 處理를 해야 되는 이런 번잡한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不可侵宣言 問題를 論議하지 말자 하는 그런 趣旨가 아니고, 緊張緩和를 위해서 不可侵 問題는 論議를 하자는 主要이시기 때문에 이 問題에 대해서는 政府當局間 會談에서 不可侵宣言을 包含한 緊張緩和를 시키는 여러가지 問題에 대해서 論議를 해서 合意가 되면 그것이 바로 國會에 와서 批准·同意를 받으면 效力을 發生할 수 있도록 이렇게 節次를 간소하게 하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平壤을 가는데 막바로 갈것이지 元山으로 돌아서가는 것은 좀 멀지않나 하는 그런 趣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北: 權先生, 解釋은 들었습니다.

南: 그런 趣旨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政府當局에서 여러가지 緊張緩和를 위한 提案들 내놓고 있으니까 서로 當局끼리 當局者會談을 통해가지고 不可侵宣言 問題같은 것은 하면되고 統一憲法을 制定하려고 하려는 여러가지 問題가 이제 論議가 되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主要은 지금 統一憲法制定을 위해서 協議機構 같은 것을 構成해서 여러 分野에서 意見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憲法을 制定하는 쪽으로 우리가 努力을 해나간다면 하나의 章典이 되고 歷史的인 하나의 方向을 提示할 수 있는 훌륭한 結實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趣旨에서, 그래서 지난번 편지에도 이런 것을 썼습니다만, 이런것을 提示를 했읍니다.

北: 말씀드려요. 그쪽에서 어쨌든 國會會談에서는 다루지 말자……

南 : 그것은 政府當局에 다 맡기자.

北 : 그건 理解됩니다. 이 뜻인데…… 첫 問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첫 發言에서 그쪽에서 提案한 첫 問題에 대한 대답드린 셈이죠.

南 : 議題 말씀이죠?

北 : 議題에서 저희들이 不可侵宣言 共同發表를 하고……

南 : 統一憲法制定을 討論하는 것도 反對하지 않는다……

北 : 그렇지요.

南 : 採擇할 用意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北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답해드린 셈이죠.

그러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별로 解釋事業을 많이 안 해도, 왜 우리가 統一에 대해서 40年間 努力해 왔는데 統一이라는 무엇하자는 것 왜 反對하겠습니까? 우리가 反對안합니다. 統一은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民族的 課題고, 그건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統一을 하자면 統一을 위한 그런 무엇인가 成熟되고 해야 現實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統一에 왜 反對하겠습니까? 그건 뭐……우리가 그것을 위해 努力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提案한 不可侵에 관한 問題와 같은 것이 解決되어서 平和가 保障되고 緊張狀態가 緩和되고 이런 基礎에서 統一을 한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統一을 위한 前提를 造成하고 基礎를 마련하는 緊張緩和 問題라든지 不可侵 問題 같은 것은 解決안하고 統一하자, 統一問題 協議하자 이러니까 조금 飛躍이고 論理飛躍이고 實踐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問題지……

그렇지만 우리가 雙方이니 만큼 이제와 같이 이렇게 不合理的하고 非現實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雙方이니만큼 우리가 그쪽 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討論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明白히 됐습니까?

南 : 그래서……

北 : 제가 말씀 다 드린 다음에……

그다음 두번째 問題입니다. 不可侵問題에 대해서는 이제와 같은 그런 理由로 해서 못하시겠다 그전에 그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問題 提起할 때 우리가 充分히 檢討하고 提起한 것이지 充分히 檢討하고 提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現實적으로 造成된 情勢로 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統一問題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特殊한 現實로 보나, 그리고 모든 것을 人民들의 念願에 비추어 보나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말씀드린 國會의 權能이나 機能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건 마땅히 適當 協議할 수 있는 問題라고 우리는 確信하고 提起했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 問題에 대한 것은 얘기될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南 : 이전 좀 앞으로 두고 그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합시다.

北 : 더 討論합니다. 그래서 아뭏든 오늘 會議도 끝나야 되겠으니깐 그것 뭐 오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쉽게 合意할 수 있는 問題부터 協議해 내려 갑시다.

南 : 合意를 하십시오.

北 :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南 : 좋죠.

北 : 그래서 첫 問題는 會談形式問題……

南 : 日時問題부터 이걸 아주 結論을 내지요.

北 : 形式問題가 아무래도 重要하고 이에 따라서 다른 問題들이 조금 規制되니까 形式問題부터 얘기해 봅시다.

南 : 그럼 形式問題……

北 : 形式問題, 저희들이 두가지 中에서 아까 두가지 생각에서 우리는 國會連席會議 形態로 하는 것이 어떠냐 提起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國會會談을 여는 바에야 좀 그저 國會議員들이 많이 參加하는 形式을 選擇해야 그래도 우리 人民의 意思를 더 폭넓게 反映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하나 理由, 그 다음에는 또 많이 參加하는 會談形式을 갖추면 國會議員들이 平壤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광범히 接觸하고 이런 過程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뿌리깊은 不信을 解消하고 民族的 和解를 도모하고 하는 이런데 더 效果的으로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것인데 지금 赤十字 그쪽 線에서도 몇백명씩 지금 오고가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 政治……여기서야 무엇때문에 이렇게 너무 規制하겠는가 적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南 : 그것은 말이죠. 連席會議問題는 지금 雙方이 각기 100명씩 서로 참석을 하자 이런 提案이신데.

北 : 각각이 아니고.

南 :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명이 가고 저쪽에서 100명이 오고 連席會議할때 참석하자 하는 이런 提案이신데, 여러가지 그동안에 本人의 경험에 의하면 會議를 主宰도 많이 하고 또 參席도 우리가 많이 해보며는 벌써 人員數가 많아지며는, 하나의 行事 내지는 이미 下部의 分科委員會에서 논의되었던 문제가 거기에서 決定을 보는 이런 과정의 會議밖에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國會만 하더라도 常任委員會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興·野間에 의논이 되어가지고 結論이 내려져서 本會議에 가서 하는 節次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100명이 오신다 할 때는 우리 國會로서는 376명이 되고 우리가 100명이 갔을 때는 最高人民會議가 615명 되지요? 715명 되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실한 意思를 반영하는……國會會談이라야 그쪽의 3個政黨, 우리 3個政黨입니다. 그렇지요? 3個政黨. 여섯개 政黨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서로 討論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25명이

초과하니까 서로 의견을 開陳하고 討論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11명, 쌍방이 11명씩 해서 22명 規模로 함으로써 眞摯한 討論도 하고 意見도 交換하자 하는 意見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連席會議을 하는 것보다는 代表團會議을 통해서 이렇게 眞摯하고 오손도손하게 실지로 意見을 내놓고 討論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效果的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北: 아 뭐, 權先生. 그게 원래 論理的으로 만이야 國民들 意思야 이렇게 國會에 反映하자면야 많을수록 좋고 또 會談도 많아서 複雜하기 보다는 그저 互相 어떤 立場이나? 統一의 立場이고 團合의 立場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南: 理致로 說明하는 겁니다.

北: 그렇지요.

南: 너무 많으면 實質的인 討論이 안되기 때문에 意見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토의도 하고 意見도 提示하는 걸로 하려면 이런 規模가 좋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北: 事實 統一이야 우리 數千萬 民族의 意思를 集大成해서 統一로 나가야 되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몇백명 정도야……

南: 많다고 좋은게 아니거든요, 여러가지가 論議되면 信賴가 造成되고 서로 往來하는 機會가 마련되고 그러면 代表團끼리라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야기 할 수 있지요.

北: 4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南: 開陳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13個 常任委員會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農村問題를 다루는 農水産委員會, 法司委員會, 文公委員會, 交遞委員會……이렇게 13개 常任委員會가 전부 部分的으로 스물여덟 사람에서 열일곱 사람으로 그 안에서 討論되면서 集大成되면서 本會議場으로 넘어가는데 실지 그래도 實側에서 오신 1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도 어떤 發言에 開陳할 機會를 가질려면 너무 會議을 進行하는 過程에서만 번거로운 것 같은 立場입니다.

그런 趣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北: 그 뭔가 進行 傾向에 대한 煩雜性은 納得이 안가구요.

南: 形式問題에서 말이지요. 代表團으로 構成해서 會談을 進行하는 쪽으로 그렇게 共通點이 거기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北: 共通點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미 便紙로 提起한 바 있으니까, 우리도 또 이렇게 뭐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기한 統一憲法, 큰 議題問題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쪽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 좋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南: 예.

北: 우리가 提案한 들중에 아무것이라도 좋다고 했으니까.

南: 統一만 된다면 수천만 우리 국민이 한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 過程이……

北: 그런데 이것은 明白해야 되겠습니다. 다수가 참관한다고 해서 會議가 번거롭고 會議가 잘 進陟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이게 제일 좋은 方法인데 實側에서 意見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이 나왔으니 우리가 意見을 闡明한바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會議를 進陟시키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데 그쪽에서는 못하겠다 하는데, 아 이거 기어이 하자 하면 회의 됩니까? 그러니까 雙方이 그저 合意해서 實側이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南: 代表團쪽으로 決定하지요.

北: 그리고 會談場所 問題인데. 그쪽에 보니까 9名~11名으로 하자는데 11名 좋습니다.

南: 예.

北: 團長問題인데, 그쪽으로 말하자면 首席代表이죠. 議長이 任命하는 분으로 정하자 이런 意見이 더군요.

南: 議長이 副議長을 指名할 수도 있고.

北: 이것이 좀 不合理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그쪽 議長은 가령 副議長을 指名했는데 우리 다른 분을 指名하고 級數도 맞지 않고……比較的 級數도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 權正遠先生, 이거야 또 뭐 民族의 重大事를 論하는 데이고 이것 무슨 안에서 그쪽 國會도 바쁘고 하나 이것 이상 바쁜게 어디 있겠나요? 우리 民族 共同으로 될 해와야 되고 民族이 지금 여기 期待를 걸고 世界가 여길 바라보는데 여기 議長이 아니 나오면 됩니까? 마땅히 議長이 責任을 지고 나와야지 議長이 누굴 任命한다는 것은 이것은 남이 보아도 좋지 않습니다. 議長을 그저 團長으로 하고……

南: 하나의 우리 意見이니까 앞으로는 豫備接觸을……오늘 끝낼 問題가 아니잖습니까?

北: 오늘 끝내야지 뭐 오래 끌겠습니까?

南: 아하……

北: 간단한데요 뭐.

南: 政治人이 性急하게 하다가는……계 經驗에 의해 말씀드리면 政治人이 될 급하게 정해 놓으니까 後悔하게 되요. 빨리빨리 決定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共通的인 意見이 提示된 것은 意見으로 정하고 그리고 또 意見이 맞지 않는 部分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研究해서……한번만에 끝내면 어쩍니까? 몇차례 그래도 해야지.

南: 相見禮도 있어야 되고……

南: 오늘 말하자면 開會式이나 相見禮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어야지……

北: 그렇게 되어야 되는건데 그건 保留하고 研究하겠다는 말씀입니까?

南: 이것도 國會議長하고도 내가 相議 좀 해야되지.

北: 그만한 程度야 뭐 相議하고 안하고 있습니까?

南: 이렇게 하는게 좋지않겠나 하고 議論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딱 決定하는 것 보다는 李載澗議長하고 相議를 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그래도 年歲도 많고 한 본인에……論議해야 되겠지요.

北: 좋습니다. 各 政黨代表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問題를 다 協議해서 決心할 것은 다 委任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南: 그런데 그게 아니고 委任은 裁量權을 상당히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나하면 國會는 우리는 어떻게 構成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民主正義黨, 新韓民主黨, 한국국민당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南北會談은 물론 政黨과도 關係가 있지만 國會議長과 여러가지로 相議해야 됩니다. 年歲도 年老하신 본인만큼.....

北: 相議하는게.....

南: 禮儀지 禮儀, 그렇지 않겠어요?

北: 하여간 이자리에서라도.....

南: 참 잘 뽑힌것 같아요. 5名, 아마도 이런거예요.

北: 가능하시면 그저 會議 잘 運營이 돼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요것만 決定 못한다고 할 때에는 그 때에 가서 마지막으로 協議하도록 하고 일단 넘읍시다.

南: 넘어갑시다.

北: 일단 넘습니다.

南: 그럼 日時問題를 定하지요.

北: 日時말입니까?

南: 예, 이것은.....

北: 日時야 그쪽에서 마지막에 決定하자는거 아닙니까?

南: 接觸이 끝난뒤 1個月 以內에.

北: 예, 우린 1個月 以內에 하자는 건데.

南: 1個月 以內에, 그건 좋지 않나 싶습니다.

北: 원래 우린 連席會議하는 경우에 두달 以內에 하자는 건데, 그래 이것으로 낙착된 것으로 보고 1個月 以內에 하면 되겠습니까?

南: 그렇지요.

北: 예, 그렇게 하십시오.

南: 場所問題는 뭐 雙方이 다 異意가 없는것 감지요?

北: 場所問題는 뭐.....

南: 왔다 갔다하면서, 우리가 서로.....

北: 그렇게 합시다.

南: 不信도 解消해 가면서, 그런데 1個月 後라는 것은 무슨 會談을?

北: 우리 豫備接觸이 끝난 다음에 本會談을 1個月 後에 하자.....

南: 그 다음에.....

北: 場所問題는 말입니다.

南 : 가만히 계세요, 運營方法에 있어서는 異意가 없어요.

北 : 없습니까?

南 : 先生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北 : 그렇게……

南 : 雙方이 協議해 가지고 모든걸 決定할 問題니까 그때 그때, 또 本會談이 열릴려면 또 縮小해 가지고 實務接觸도 해 가지고, 細部的인 것은 定해……

北 : 그렇지요.

南 : 그래서 그건 별 問題가 없고.

北 : 來往節次는 어떻습니까?

南 : 來往節次도.

北 : 이것도 일없지 않겠나요?

南 : 雙方이 通知하고 뭐.

北 : 通知하고, 身邊擔保覺書도.

南 : 身邊保護해야지요.

北 : 宿食, 便宜上 招請者側에서 保障하고 이것도 뭐 일 없는것 같고.

南 : 그거 뭐 協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건……

北 : 그 다음에 連絡手段, 아까 말씀하신 直通電話 그것도 같지 않습니까?

南 : 네, 같지요. 그것을 언제까지 할까요? 1週日 以內에 架設해서 지금까지 우리 書信往來하는데 赤十字 통해 가지고 이랬거든.

北 : 그러니까 權선생 말씀은 豫備接觸이 이루어지는 오늘 以後 한 1週日 以內에 열자 이겁니까?

南 : 直通電話 架設을 1週日 以內에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北 : 그건 조금 研究해 봅시다. 우리 案은 앞으로 本會談이 열릴 때에 本會談 事業保障을 위해서 國會와 國會사이에 平壤과 서울사이에 直通電話 架設하자 이인데, 그렇게 理解하셨습니까?

南 : 그런데 우리가……말리 합시다. 이거 뭐……

北 : 말리 해야지요.

南 : 本會談이 또 열리게 되면 그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왜그런가 하면 赤十字를 통해 가지고 보내고 그것을 또 赤十字 통해서 받고 節次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北 : 이것도 討論합시다. 그 後에 討論합시다.

南 : 그럼 連絡手段에 대해서 後에……

北 : 連絡手段 뭐, 連絡手段하자는 데 대해서는 意見이 같구요.

南 : 時日이 問題군요.

北 : 다만 어느날부터 하겠는가? 本會談이 열린 그때 하겠는가, 1週日 後에 하겠는가 이것이 問題에.

南: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며, 그러면 남은게 議題問題인데요.

北: 아니 그 問題……첫 會談 場所問題지요.

南: 첫 會談 場所問題

北: 첫 會談 場所問題인데, 우리가 提案하기는 平壤에서 먼저하자 이런 提案 했는데 이것도 뭐 다른 意見 없으시죠?

南: 實例에서 먼저 이 會談 自體를 提案했으니깐.

南: 우리 希望은 서울에 한번 모두 오서가지고 한번 처음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北: 양보하셔야지, 우리 크게 자주 양보하는데……

南: 요건 뭐 枝葉的이고 조그만한 問題니까, 그럼.

北: 조그맣지만 그래도 合意는 돼야 되겠으니깐.

南: 合意는 돼야지요.

北: 平壤에서 하는걸로 합시다.

南: 이 問題도 조금 봐 두십시오.

北: 봐 두겠습니까?

南: 連絡手段과 마찬가지로 조금 봐 두십시오.

北: 봐 두겠습니까? 그거 뭐 간단한 문제며 자주 봐두면.

南: 連絡手段도 간단한 問題니까, 우선 봐두자 그랬으니깐 나도 하나 봐두고 서로……(웃음)

北: 그렇게 하지요. 問題를 複雜하게 할것 없이 議題도 우리가 實例 意見을 받아들인 것만큼 實例도 우리 意見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南北間에 다 緊張狀態를 中止하는 問題는 重要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討議하고 實例에서 提議한 것도 討議하고 이렇게 해서 北南豫備會談같은 出發을 아주 雙方이 넓은 도량을 가지고 理解를 가지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南: 좋은 말씀입니다.

北: 필수만 있으면 豫備接觸 過程은 時間 끌 것 없이 本會談을 빨리하기 위해서 一瀉千里로 나가면 되겠구만, 어떻습니까?

南: 그렇지요 뭐, 우리가 뭐 統一을 하자고 하는 問題니까 서로 간단한 問題는 合意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協議를 해야 될 問題는 진지하게 協議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고 다만……

北: 그러면 좋습니다.

南: 이걸 좀 풀시다. 連絡手段 問題도 좀 未決로 봐 두십시오.

北: 네, 未決로 풀시다. 그럼 그거……

南: 그럼 남은 것이 議題問題만 남는데요.

北: 議題問題지요.

南: 議題問題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누누이 說明을 드렸지마는 不可侵宣言 問題는 政府쪽에다가

그쪽에다 맡기십시다.

北: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요. 問題가 뭐 좀더 原則的인 문제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提起하면서 充分히 檢討하고 제기한 문제니까, 아까 제 發言에서도 想起시켰는데 그래서 그런 그쪽 立場도 고려해서 國會會談에서 다룰 不可侵問題의 內容과 當局者會談에서 다룰 不可侵 內容이 말하자면 規範·內容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안한 것은 國會의 權能에 속하고 國會의 테두리 안에서 옹당 다룰수 있는 성질의 문제를 제기했고 當局會議 것은 當局行政的 그런 職能에 맞게 제기했고, 그러니까 이거 뭐 꼭 當局會議에서 해야 된다 이진 잘 맞지 않지요.

그래 제가 좀 說明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問題를 제기함에 있어서 어떤 立場에서 제기한 건가 原則的인 問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問題를 제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情勢 엄혹한 現實로부터 出發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權正遠 先生 첫 發言에서 아주 정당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戰爭, 아직 위험한 戰爭의 狀態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진 막아야 합니다.

國會라는데 뭐니까? 國會라는데 民意를 반영해서 法을 제정하고 對內외의 政策의 方向과 原則을 規制하고……그렇지 않습니까? 이 點에서는 우리도 그쪽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情勢가 어떻습니까? 對決이 심하고 언제 戰爭이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時局에 놓여 있습니다. 이진 누구도 外面할 수 없습니다. 이 問題는 우리 人民 우리 民族이 戰爭을 反對합니다. 平和를 바랍니다. 平和를 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情勢下에서 戰爭을 許容하지 말고 戰爭의 危險으로부터 民族을 救援하는 것 이게 最高의 課題로 남아 있습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는 데는 우리 民族成員 전체가 다 責任 있고 社會·政治組織들도 다 責任이 있고 政府當局도 責任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責任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사실이야 民族을 먼저 救援해야 하지요. 民族이 있고서야 政治도 있고 法도 있고 우리 政治人도 存在하는 것이지 民族을 救援하지 못하면 政治가 무슨 소용있으며 國會가 무슨 소용있으며 우리 政治人이 서야할 位置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民族을 救援하는 것을 最高의 課題로 두고 모든 힘을 우리가 集中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國會가, 立法機關인 國會가, 最高政策을 立案하는 國會가 이런 거를 上程시켜서 解決해야지요. 政治가 이런 問題를 要求합니다. 政治가 方向轉換할 것을 要求합니다. 말하자면 對決에서 和解로, 戰爭線에서 平和線으로 政策轉換할 것을 要求합니다. 우리 民族이 이것을 要請합니다. 現實이 要請합니다. 그러면 民意를 대변한다는 國會가 마땅히 이것을 反映해서 問題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主役이 되어야지 이것을 넘긴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지요.

둘째, 우리가 어떤 問題를 타산·고려했는가? 政治人이 現實을 逃避할 수 없다. 政治人의 責任이 너무 무겁다. 여기에는 法論理를 앞서는 그 이전 문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려했는가? 여기 上程한 問題가 우리 民族 共同의 문제고 民族內

部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民族이다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國家間에 제기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北과 南에는 서로 다른 制度가 있고 서로 다른 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각각 特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解決하는 데서 어느 一方的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一方的인 體制나 法, 이 論理를 가지고 이 民族共同의 문제를 設定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니까 民族共同利益을 최고의 지위에 놓고 나머지 문제는 이 밑에다 놓고 다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立場에 서면 된다. 그러면 民族共同 위에 놓고 다룰 基礎가 있는가? 있습니다. 쌍방이 어느 一方的인 것을 가지고 論하기에 앞서 우리는 7·4共同聲明에서 民族앞에 闡명한 祖國統一 3大原則이 있습니다.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 이게 法이라면 北과 南에서 共同으로 준수해야 하고 履行해야 할 최고의 공동의 法이지요. 여기에 法이라고 붙이지 않았다 뿐이지……이러한데 基礎해서 우리가 發願을 할수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쪽 法律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아까 國會機能과 관련해서 戰爭·平和에 대한 문제는 行政當局에서 해놓은 것을 이쪽에서 한다 이랬는데……우리가 내놓은 문제가 순수한 戰爭·平和問題 아닙니다. 극히 왜소하고 狹義한 問題 아닙니다. 우리 文件을 좀더 연구해 보시면 알겠는데, 不可侵이란 여기에 함축된 案이지만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아까 그쪽 現實에서 움게지 적하였습니다. 不信任이 조성되어 있고 民族間에 뿌리 깊은 反目이 조성되어 있고 分裂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이 문제는 바로 不信을 해소하자는 것이요, 民族内部의 和解를 도모하자는 것이요, 民族團結을 보장하자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民族統一의 基礎를 마련하자는 문제입니다. 이전 아주 큰 政治問題입니다. 그리고 큰 民族問題입니다. 이것이 무슨 前提條件이다 뭐그런거 아닙니다. 더구나 그쪽 憲法을, 條項을 研究해서 봤는데 그런 문제 아닙니다. 우리 民族内部에서 싸우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자는 겁니다. 큰 政治問題, 民族問題 해결하자는 겁니다.

南: 아니, 그렇게 아니고……

北: 글썄, 좀 들어 보세요.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같은 문제데……같은 不可侵問題를 이쪽에서 다루서 못하게 뭐 있는가? 우리는 우리 몫이 있고 저쪽은 저쪽 몫이 있는데 저기는 저쪽 대로 하게 하자……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立法的 見地에서 立法機關들이 나와서 不可侵에 관한 하나의 原則을 제기하고 이런 原則과 方向에 따라서 하시오. 當局이……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리고 실지 우리나라 情勢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當局者會談을 할수 있는 그런 情況이 조성 못되었지요. 우리가 이번에 잘해 놓았어요. 거꾸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稱 發表는 간단한 거예요. 그걸 發表해 놓으면 當局에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할수 있는 法的인, 政治的인 하나의 基礎가 되지요.

그걸 基礎하여 다루면 좋지요. 그다음에 國會에서 또 쉽게 通過하지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우리가 할수 있는 몫을 자꾸 다른데로 넘길려고 하느냐? 모여 앉은 김에 합시다. 世界 어느 나

라 치고 평화에 관한 문제에 國會가 中心을 못차지하는 데가 있습니까? 國際에서도 그렇고 國家間에도 그렇고 다 이걸 중심에다 놓고 합니다. 우리 民族 內部에 엄혹한 情勢가 조성되어 있는데 國會가 우리 政治人들이 이걸 우리 몫이 아님에 하고 다른데로 넘긴대서야 말이 됩니까?

南: 우리가 論議할 問題가 아님에 하고 넘기는 그런 立場이 아니고 왜 이것을 세번에 걸쳐서 하느냐?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서 처리함으로써 能率的이고 迅速하게, 努力도 낭비 안하고 시간도 낭비 안하고 實務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이렇게 2段階로 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이런 論理인데요 아까 내가 누누이 說明을 드렸지요. 實側에서의 편지 內容을 보면 國會會談에서 不可侵宣言을 共同發表하고 그 다음에 政府當局間 會談에서 이걸 채택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던 말예요. 그러니까 節次상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政府當局끼리 不可侵宣言을 포함해서 緊張을 緩和하는 문제, 이 문제를 다 포함해서 論議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잘 되도록 밀어주고 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선생 하시는 말씀중에 우리 民族의 同質性, 이것을 우리 하나의 會談의 基本으로 삼아서 해나가자.....그거 다 좋아요. 또 緊張을 완화하고 우리가 서로 信賴를 회복하자, 平和를 유지할 수 있도록 共同努力해 나가자 하는 原則에 대해서 아무 異意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데 내가 實務적으로 우리가 實務會談이니까 어떻게 하면 不可侵宣言을 포함해서 이걸 빨리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政府當局에 좀 알아봤읍니다만 82年 1月 22日에 벌써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맺자해서 모든 形態의 武力 및 暴力의 사용 또는 위협의 完全 止揚과 對話 및 協商을 통한 완전해결 또 상대방 內政에 대해서는 內政干涉를 일체 하지않고, 또 統一國家가 수립될때까지 잠정적으로 互惠平等에 입각한 상호관계를 유지하자 또 軍備競爭을 우리가 지양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 조치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 또 그뿐 아니라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에서도 南北間의 緊張완화와 戰爭再發 防止를 위한 效果的인 措置를 강구하는 문제를 議題로 하여 論議하자, 이런 提案들이 이미 政府間에 제안되어 있으니 이걸 받아가지고 當局間에 緊張을 완화하고 불신을 해소하고 하는 방법을 政府當局이 해나가면서 우리는 國會次元에서.....아시다시피 國會는 여러가지 民意를 받아가지고 立法을 하는 機關이지요. 또 年中豫算을 편성하는 機關이요, 각종 條約이나 協定을 政府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批准 同意하는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國會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問題는 이미 다 提案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政府間에 協議를 거쳐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또 빠른길로 가서 해결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論議할 수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 이외에 統一憲法 制定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統一基盤 構築을 위한 必要한 事項에 대해서 우리도 또 우리 國會會談을 통해서 信賴回復을 할수 있도록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國會議員間에 서로 交流도 하고 代表團끼리 交換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를 점점 구축해 나가자.

信賴를 構築해 나가는 문제는 전선생님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에 하루이틀에 한달두달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전 그렇게 봐요. 우리가 相互 努力을 해서 서로 來往하고 交換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믿게되지, 서로 못믿는 가운데 말만 오고가고 해서 結實을 맺을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은 택하지 않고 어렵고 복잡한 方法을 택하려고 하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理解해 주시길 바랍니다.

北: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南: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요. 아까 代表團長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現實逃避를 할려고 한다. 왜 이런 긴박한 문제를 놓고 政治人이 現實逃避를 할려고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緊張緩和와 戰爭再發 防止를 가장 優先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진작부터 우리측의 意思를 闡明했습니다.

1974年에도 했고 1982年 1月 22日날 南北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에서 바로 그것을 밝혔습니다. 모든 분쟁은 對話와 協商을 통해서 平和的인 方法으로 하자 또 緊張緩和와 戰爭再發 防止를 위해서 軍備競爭 中止, 또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를 위해서 協定을 체결하자고 分明히 1982年 1月 22日 날 우리가 提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3年 1月달에 이미 南北 最高當局者會談에서 이러한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를 우선적인 課題로서 促求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볼때 우리 大韓民國이 그야말로 얼마나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서 焦眉의 急務로 알고 努力을 해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를 누가 다루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디서 다루는 것이 가장,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길을 두고 뉘로 간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不可侵宣言에 관한 共同宣言을 하는것이 어디서 하는것이 가장 合理的이고, 가장 效率的이고 또한 平和統一을 이룩하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國會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當局者間에 해야 되고, 또 當局者間에 2年前에 3年前에 우리는 이걸 提案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1年前에 이걸 提案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實側에서는 이러한 問題를 빨리 實側 當局에 추구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될것이고 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南北 當局者間의 會談을 하는대는 아직 情況이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情況이 왜 안되어 있습니까? 저는 되어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꼭 그런 會談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우리는 不信과 誤解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긴장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國會會談을 열었습니까? 우리 276名의 國會議員들은 어느 事業보다도 이 國會會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國會會談을 통해서 平和統一을 우리는 꼭 이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國民들도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제 選舉區民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무슨 편지냐 바로 제

選舉區民으로서 73歲되는 본인에 장철용氏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以北에 故鄉을 두고 6·25에 越南한 離散家族입니다. 이 분의 편지중에 간절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南北會談에, 國會會談에 代表로 간다고 하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會談을 成功으로 이끌어 주시오. 그래 가지고 내가 또는 우리 離散家族들이 꼭 故鄉에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지금 73살입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生前에 내 정든 땅 내 故鄉에 찾아가서 내 先祖분들 묘소앞에서 술한잔 올려놓고 참배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그러면 내가 지난 35年동안 先祖앞에 지은 不孝의 죄를 씻으렵니다』하는 간절한 이 호소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大韓民國에서는 바로 이 國會會談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온 겨레의 열망과 기대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不可侵에 관한 問題는 이미 몇번 政府當局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政府當局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統一의 大憲章, 憲法을 만드는 일이다 이겁니다. 統一憲法을 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한 나라가 建國을 하고……

北: 저, 선생님……(發言沮止 企圖)

南: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 말씀듣고 하시라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統一國家를 이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不問하고 다 制憲議會를 통해서 統一憲法을 만들었습니다. 이 統一憲法은 뭐냐, 우리 6천만 民族의 統一의 意志와 念願을 담고 앞으로 統一國家의 基本方向을 提示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方向을 決定하고 그 밑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하지 그걸 놓아두고 뭘 해요. 우리는 立法人입니다. 우리는 政治人입니다. 立法人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北: 아, 統一憲法에 대답을 들었는데, 자꾸……그건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南: 아, 제말씀 좀 들어보시오. 구석구석 들어보시오 끝 끝나니까 들어보시오.

不可侵에 관한 宣稱問題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긴장완화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戰爭再發 防止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74년부터 또 82년, 83년 우리가 提議를 해놓고 있고 實側 當局에 協定을 제정하자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實側에서는 政府當局에 하도록 추구를 해야 할 문제고 우리 國會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문제 보다는 統一憲法을 위한 民族 統一協議會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추구합니다.

南: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합시다. 이걸 지금 여러가지 提案한 것이 相互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合意된 것은 合意된 걸로 우리가 整理를 하고 未合意된 것은 未合意된 걸로 남겨서 다음 회의에 接觸을 통해가지고, 豫備會談을 또 한번 더 해가지고 거기서 또 論議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합니다.

北: 한번 더 하겠습니까?

南: 한번 더 해야지요.

北: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南: 그 전에 회의를 대개 낱말이나 말꼬리 가지고……

北: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權선생 그렇게 합시다. 그쪽에서 말씀하신거 그런데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회의를 끝내자고 하는데 제가 유의합니다.

우리가 提議하자는 게 뭐 會議를 복잡하게, 뭐 段階가 많다 복잡하게 한다 이진 잘못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담보 있게 이번에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회가 이걸 다루어야 된다는 건 그쪽에서 인정하시는 구만요. 다루어야 하니까 해야되죠 그겁니다. 이게 아주 民族의 重大事고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關心을 가지고 世界가 朝鮮에서 緊張을 풀어주시오 하는데 國會가 會談을 열었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소 저쪽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야 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확고히 잘하자 그리고 다음에도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基盤築城 문제를 그쪽에서 말씀하시는데, 基盤築城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오해를 풀고 信任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도 됩니다. 그것 좋습니다. 그걸 합시다. 그러나 그래도 제일 큰 方途가 뭐냐? 統一-基盤築城하고 하자면야 그래도 이제와 같은 不可倣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게 아주 이제 統一-基盤築城되는 데서 결정적 擔保지요.

南: 누누이 說明했지요.

北: 그쪽으로도 거기 복무하기는 하지만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뭐, 이야기는 오늘 아무래도 끝내지 못할것 같고 그래서 合意된 걸 다시 눌러놓고……

南: 整理를 하지요.

北: 整理를 합시다.

南: 會談形式 關係는 11名으로 하고 대표단……

北: 形式은 代表會談으로 합시다. 그리고 11名으로요.

南: 그러죠. 예, 11名으로 하고 團長問題는 좀 남겨봅시다.

北: 團長問題는 또 협의를 한다……

南: 예, 그 다음에 日時는……

北: 隨員은 20名씩, 50名 이렇게 합니까?

南: 隨員……記者問題는 융통성이 있는 거니까. 그건 本會談 數字가 問題지 기자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건 實務的인 問題예요.

北: 협의하는게, 決定하는게 중요.

南: 끝날 段階에 整理하죠 뭐.

北: 위에 하겠습니까?

南: 뒤에 합시다. 그건 實務的인 문제니까. 아주 枝葉的인 問題니까, 日時問題는 우리 예비접촉이 끝나고 1개월 이내로 한다.

北: 1個月 以內로 하자. 좋습니다.

南: 場所는 서울·平壤이 좋다.

北: 平壤·서울로 한다. 좋습니다.

南: 예, 그 다음에……

北: 첫 會談은? 첫 會談은 平壤으로 한다.

南: 서울·平壤으로 하는데 첫 會談은 어디서 할 것인가는 조금 留保를 합시다.

北: 아, 그거야 결정을 합시다.

南: 아니 아니, 團長하고 요거는 좀 留保를 합시다.

北: 아, 그거 뭐……

南: 다음에 하죠.

北: 이번에 결정하고 지나가는게 좋지.

南: 좀 남겨 놓아야지 다하면 어떻게 해요?

北: 아니 이거, 오늘 끝내자는데 우리가 이거……

南: 어차피 다할 수 없는건데……

北: 오늘 다하는게 좋지.

南: 너무 빨리 결정하면 그건 곤란하지. 그 다음에는 연락수단문제, 아까 논의하던 것 電話架設하자는 것, 우리가 예비회담에서 가설해서 本會談까지 꼭 쓰도록 그렇게 1주일 이내에 하자.

北: 이것도 다음에 합시다.

南: 다음에 할까요? 그럼시다. 그 다음에……

北: 議題問題는 뭐……

南: 議題問題는 조금 미루어 봅시다.

北: 議題問題는 미루어 두기보다 그쪽에서 不可侵에 관한 문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南: 이걸 조금……

北: 다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南: 그건 雙方이 같습니다. (웃음)

南: 그 다음에 運營方法에 대해서는 별로 異意가 없는데요. 그 具體的인 問題, 運營방법의 원칙을 뭐 非公開로 하고 必要時 公開로 한다든지 이런것도 會談進行上에 있어서 아주 實務的인, 事務的인, 事務的인 問題란 말입니다. 그렇죠?

北: 非公開를 원칙으로 하고 必要할때 공개로 한다 그러면 되죠?

南: 그렇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北: 報道는 各其 便宜대로 하고 合意된 事項만 共同發表를 한다.

南: 各其 便宜대로 하고 合意된 事項만 共同發表하고……에.

北: 그리고 記錄은 錄音도 좋고 速記도 좋고 쌍방이 편리한대로 해야지, 텔레비 중계를 招請者側에서 相對側까지 놓이자……

南: TV중계문제는 이진 난 實務的으로 잘 모르겠는데……

南: 非公開로 하자고 하면서 TV中繼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北: 아니, 공개, 비공개 그때 그때 합의되니까.

南: 生放送 中繼를 하자 이런 말입니까?

北: 그렇지요, 生放送 中繼도 하고 必要에 따라서는 公開도 있겠으니까.

南: 中繼하는 問題 이진 技術的으로 난 잘 모르겠어요. 放映問題는 좀 고려하십시오. 이진 내가 돌아가서 技術的인 問題를 檢討를 해가지고……

北: 요거를?

南: 예, 放送問題는……

北: 예.

南: 그렇게, 대략되었죠?

北: 來往節次

南: 往來節次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진 내가 記錄을 다 못했는데……

北: 來往節次 問題는 身邊安全擔保聲明을 먼저 하자고 하는 것……

南: 保障聲明 좋죠. 그래서 서로 交換하고……

北: 그래가지고 그 聲明原文을 交換하자는 것.

南: 交換하죠.

北: 그 다음에 代表團을 交換할 때, 來往할 때 信任狀을 가지자……其他 분들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통과할 때 사진을 첨가한 名單을 3일전에……

南: 아이구, 쏘선생. 그런 문제가 會談하는데 아주 사무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北: 그것도 사전에 해야지. 이진 뭐 다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대답만 하면 되는건데 뭐.

南: 慣例대로 하지 뭐.

南: 慣例대로 하고 節次問題는 나중에 事務的으로……

北: 그다음 문제 없죠? 그러면 다되는 거지요?

南: 그 다음에 이제……

北: 便宜保障問題

南: 편의보장문제는 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次期會談 問題인데 그렇죠? 이다음에 우리 接觸을 어떻게 하자, 그런데 우리 事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北: 예.

南: 우리가 8월달에 만이죠. 新韓民主黨에 차議員하고 候議員이 소속입니다 마는 全黨大會가 있어

요. 全黨大會가 8월초에 끝나고 나면.

北: 新民黨에서요?

南: 예. 全黨大會가 끝나면 黨職改編이라든가 여러가지 黨에 따르는 節次가 있어요. 그래서 8월중에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北: 예.

南: 그래서 9월 20일부터 국회가 열려요. 우리측 國會議員들은 사실 전부 시골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全部 歸鄉活動이라해서 시골가서 選舉區에 가 가지고 전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귀향보고하고 이런걸 해요. 그래서 9월 20일날 다 올라옵니다. 20일전에 그래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여러가지 오늘 회담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集約해 가지고 9월 25날 좀 하자는전에 우리쪽 사정이 그래요.

北: 事情이……

南: 예, 그래서 그렇게 諒解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창 바쁠 때예요. (北側代表들 경청하면서 이해하는듯한 태도를 보임)

北: 원래야 實務接觸이니까 또 이제 提起된 문제 자체가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다음번 모여 앉으면 쉽게 結束할 수 있는 문제인데 8월달 넘기는 건 아쉬운데……9월달 또 初쫄은 몰라도 末로 되니까, 뭐 地域區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야……

南: 20일이 되어야 국회의원들이……

北: 뭐 선거구에 있는 분들……

南: 아니 外國도 가고, 외국에 간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돌아오는게 20일 전후에 돌아오니까, 25일 전후에 하자는게, 우리 事情이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세요.

北: 25일, 選舉區분들 北南接觸을 위해서 나가게 된 영웅을 좀 양해하시고 선거구민들이 다 양해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南: 아니,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니까……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北: 바탕으로 해서……그러니까 우리 事業을 좀더 重視하고 그쪽 사업을 좀 調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더 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南: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죠.

北: 9월 25일……

南: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北: 아, 너무도 멀어 놓으니까……

南: 아니 뭐, 7週나 되나? 7週쯤 될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北: 그럼 그렇게 합시다. 方法이 없지 뭐.

南: 그렇게 합시다. 오늘 회담은……

北: 두달이나 서로 事情을 理解해 주고……

北: 뭐 쌍방이…… 뭐 어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전부, 전부 우리가 양보하는 겁니다.

南: 아니, 오늘은 會議보다는 開會式이니까 서로 人事하는 相見禮하는 이런……

北: 우리가 全部 양보인데 權선생 아주 인색합니다. 아주 인색해요. (웃음) 이거야 雙方會談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그럼 場所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거 원래 板門店이 좀 협소하고 오늘도 해보니까 더구나 또 우리 政治人들이 자주 앉는건데 板門店 이거 이런데 앉기 보다는 다음에 평양과 서울로 오가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南: 2次會談이 끝나고……

北: 예, 2次會談, 2次會談을 平壤과 서울로 하자는 겁니다.

南: 2차회담 끝나면서 그 문제는 결정합시다.

北: 아니, 제 이야기는 이 豫備接觸 第2次 會議를 여기서 하지 말고 平壤과 서울로 옮기자는 겁니다.

南: 아! 서울과 平壤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자……예비 접촉을?

北: 예, 예, 그겁니다.

南: 그것은 2次會談 여기서 하면서 거기서 決定하십시다.

北: 아니, 아니, 조금 理解不足인데, 2次 豫備接觸 會議를 여기서 하지 말고 平壤이나 서울로 하자는 게지요.

南: 그건 가서 또 連絡해 드릴게요. 連絡해 드리는게……

北: 그것도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南: 그럼 電話가지고 우리서로 통해서 이야기 합시다.

北: 電話로?

南: 예.

南: 좋은 方向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하죠.

北: 그렇습니까?

南: 그런데 아몽든 말이죠. 우리 政治人들 하고 만났다는 事實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大韓民國 國會에서 102席을 가지고 있는 新民黨에 所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黨도 國會에서 統一에 관한 여러가지 意見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北: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電話로써 알려주십시오.

南: 그러십시다.

南: 全先生님, 한가지 제가 기왕 만났으니까, 우리가 40년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더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雰圍氣를 만드는 것이 가장 先決要件입니다.

北: 그렇죠. 不信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北: 그리고 마지막으로 權正遠 首席代表先生!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지면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쌍방대화에 이론적 만큼 우리가 相對方의 意思를 존중하고 호상양보하고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會談하는 것이 하나의 原則이고 對話의 道德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 最高人民會議에서 좋은 案을 發起하고 提起했는데 오늘 여기와서 보면 그 쪽에서는 다른 案 가지고 와서 提起하는데 그건 뭐 우리 反對없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提起한 案은 아직은 討論 못하겠다. 다른데서 하자 그랬는데 이젠 좀 놀라운 일이고 또 누가 봐도 이젠 납득이 좀 안가고 그래서 다음에 충분히 다 이거 오늘 거의 다 合意를 본건데 아주 얼마나 成果 있습니까? 이 문제만은 그쪽에서 研究를 하고, 아니 研究의 여부도 없죠 그저 좋은 대답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는 오늘 그쪽에서 첫 발언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 들었는데 말하자면 權正連 首席代表先生 말씀에도 發言 原稿에 오늘 우리 雰圍氣를 잘해야 되겠다. 大贊成입니다. 그런데 相對方 刺戟하는 이런 얘기 있었고 우리와 關係없는 이런 問題 더구나 오늘 이 會議과 關係없는 이런 問題를 가지고 言及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對話의 雰圍氣를 위해서 對話의 前進을 위해서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이런 걸 권고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強調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南: 그 問題는 全先生 말이죠, 다시는 그런 問題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뜻이고 앞으로 우리 會談을 잘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北: 글세, 그러니까.....우리가 지금 모였으니까 우리가 會談을 잘하자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이고 또 關係없는 問題는 다시 하지 말자 이걸 좀 강조합니다.

南: 政治人들은 會談을 이끌어 나가는데 政治力을 좀 發揮합니다.

北: 그렇지요.

北: 자극제를 좀 쓰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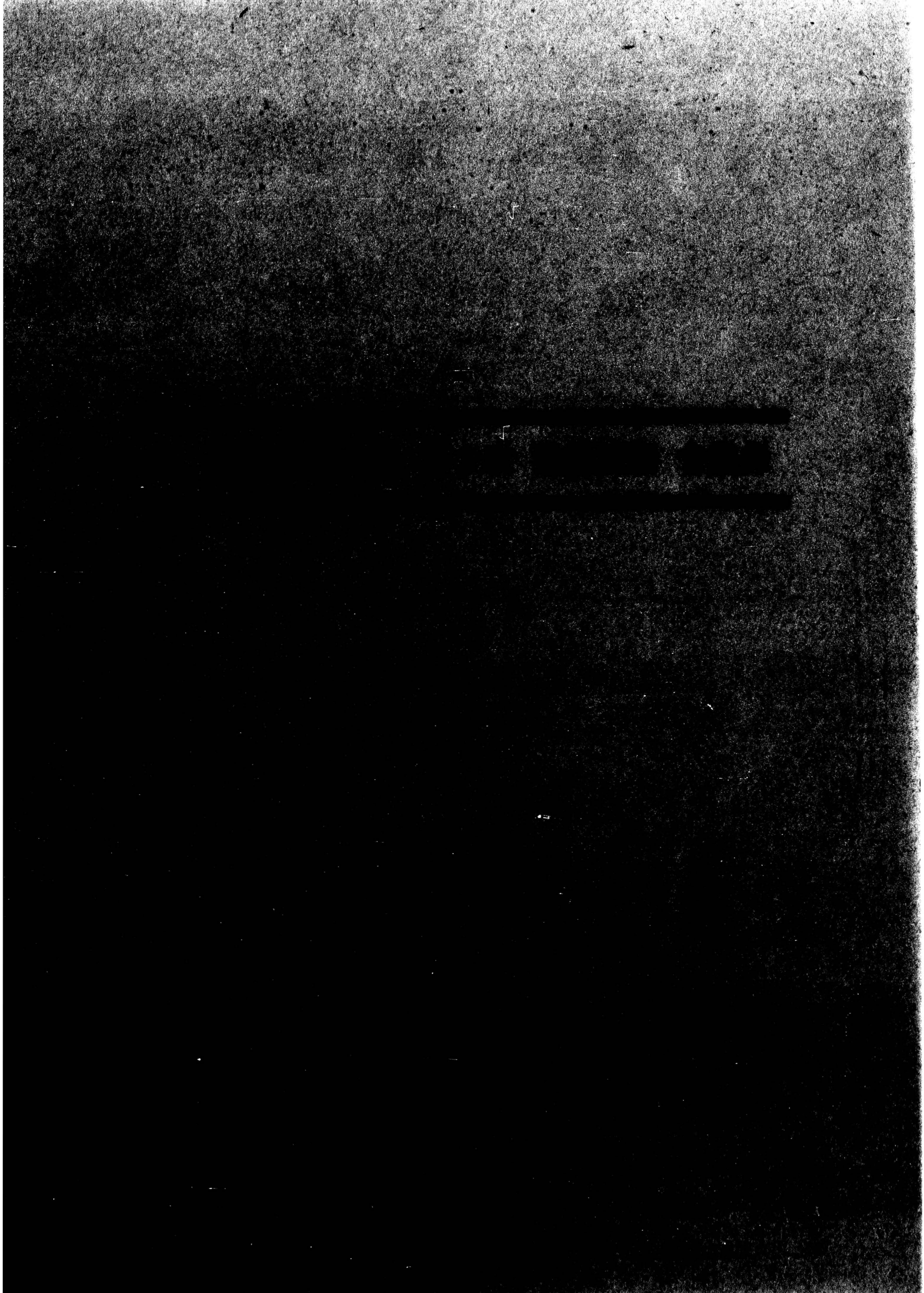
北: 그렇게 할까요. 첫 발언들을 隨員들에 좀 넘겨주고 서로 받고 그렇게 합니다.

南: 隨員들끼리 서로 交換하도록 하고. 자, 오늘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했습니다.

北: 예. 아주 감사합니다.

北: 잘 준비해 가지고 9월 25일에 만남시다.

<會談終了, 雙方 人事交換後 退場>



南北國會會談 第2次 豫備接觸 會議錄

日 時 : 1985. 9.25 (水) 10:00-12:02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北 : 안녕하십니까?

南 : 예, 지난 會談 때는 날씨가 무척 더웠지요?

이제 가을이 돼서 會談하기도 좋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좋은 結實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北 :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南 : 예, 금년은 많이 더웠지요?

北 : 예 감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南 : 예, 감사합니다.

北 : 權先生하고 우리가 會談한지 한두어달 지났는데 두달이란 기간이라는 게 원래 40年間이라는 하나의 民族分裂의 歷史에 비하면 뭐 별로 긴 게 아니고 짧은 期間인데, 이 기간에 쌍방 민족사에 사정도 많았다…… 그 사이에 우리는 祖國解放 마흔 둘을 기념했고 赤十字會談 9次會談이 平壤에서 있었고요. 며칠전에 藝術團 交換, 故鄉訪問團 交換이 있었고 이번 故鄉訪問, 藝術團 交換 등이 우리 民族的 事變이요.

南 :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北 : 지어는 세계 사람들은 모두다 關心을 갖는 것 같아요. 이런 世界史的 事變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 : 며칠 있으면 秋夕이 다가오는데 우리 햅곡식 가지고 송편도 빚고 음식도 많이 장만해 가지고 차례도 지내고 省墓도 하고 이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秋夕 잘 지내시지요?

北 : 秋夕을 우리 뭐 굉장히 합니다.

추석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날을 日曜日로 했습니다. 다 休息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國家的, 政府的 조치에서 秋夕날에 우리 모두 省墓 하도록 해서 保障을 다 합니다. 뭐 수송부담, 묘지에 가는 길이 막히니까, 따라서 最大限으로 전적으로 保障합니다.

職場에서 職場으로서 모두 保障事業으로서 그래서 그날은 그야말로 全民族의 名節같은 氣分이 지요..

南 : 금년에 일기가 좋아서 豐年입니다.

北 : 일기가 좋아서 大豐입니다.

南: 우리도 大豊이요.

우리 남쪽에 비가와서 조금 나락이 쓰러지고 한 메도 있는데 아주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4千萬石 이상 수확이 되지않나, 그쪽엔 보통 年間 잘 農事지으면 얼마나 됩니까?

北: 우리는 지금 그저 1,000萬톤 수준이요.

南: 톤으로 1,000만톤?

北: 예, 년간 노력할래야 옛날 같으면 農士가 얼마나 척박하고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農法을 主體農法이라 해서 現代化하고 集約化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풍토와 이렇게 農法을 發展시켜서 農事가 아주 잘 되지요.

南: 그쪽에 어떻습니까? 灌漑, 水源 완전히 貯水가 되는데 몇 %나 됩니까?

北: 더이상 판개는..... 거의 다 될거요.

南: 다 되겠습니까?

주로 밭농사가 많지 않습니까?

北: 우리가 故郷訪問團, 藝術團 보면서 생각되는 것 하나 있는데.....

南: 이번에 잘 된 것 같습니다.

구경하셨습니다?

北: 우연히 어떤일로 해서 고려호텔 지나가는 길에 그때 방금 상당히 성대하게 진행된다 해서.....

南: 公演할 때요. 공연할 때도.....

北: 그때는 제가 사정이 저기돼서 보지못했고.....

南: 나는 公演도 다 봤어요. 참 애 많이 썼더군요.

北: 우리 藝術 편찮습니다. 좋습니다.

國際舞臺 나가서도 찬양 많이 받고.

南: 우리는 어제는 왜.....

北: 우리 民族和合으로 해서 지금 나갔으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절찬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南: 좋은 일이죠.

北: 사람은 이번에 몇이 안되고 우리 藝術部門만 해도 우리 보통 몇 백명돼야 보통 構成되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50名 정도였지만 그게 重要하지 않다, 이제 分界線을 넘어서 그쪽에서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고 藝術分野에서 交流가 처음으로 이뤄지고 갈라진 家族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血肉들이 直接 만나고 한 自體가 重要하다.....

南: 離散家族의 이번의 만남의 광경을 보고요, 賅側에서도 물론 報道가 됐겠지만 그네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休戰線에 鐵길은 녹슬어도 결국 핏줄은 녹슬지 않는다, 그런 어떤 事實을 거기서 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北 : 예.

南 : 아주 이번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었지만은 가장 가까울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確認했습니다.

北 : 예, 우리가 民族이라 하나의 血統을 이어간 하나의 民族이란 것을 切感하게 됐지요.

南 : 그래서 이래 좀 여러모로 交流가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北 : 그렇지요.

南 : 서로 理解를 增進하고…… 不信을 하는데 앞으로 交流가 多角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北 : 예, 이번에 藝術團도 좀 消極的인 側面이 있다고 생각돼요.

좀더 積極的으로 해서 人員數도 늘리고 公演할 回數도 더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어떻게 하면 互相 理解하고……

南 : 訪問團도 故鄉訪問團도 서울·平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故鄉도 가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北 : 이번에 모두 우리 人民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 보고하니까 좋은 일 했다고 합니다.

歷史的인 일을 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다는게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이거는 좋다…… 이제는 갈라진 家族도 어떻게 몇사람만 만나게 했느냐…… 하지만 처음 갖게 된 하나의 강렬한 마음으로 불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實現시키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역시 赤十字會談에서 좋은 일을 해냈는데 自由來往이라는 合意했으니까 合意를 實踐하고 그다음 궁극적으로야 統一해야……

南 : 그야 물론이지요.

北 : 궁극적 統一해야 갈라진 家族 1千萬 오르내리는데 根本的으로 解決되지 않느냐? 見解가 그래요.

南 : 思想과 理念이 아무리 굳어도 그걸로 인해서 몸부림치거나 우는 사람은 별로 없을거요. 그런데 그 離散家族의 헤어졌던 情이 결국 통곡이나 몸부림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南 : 만날 때 보다는 서로 헤어질 때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北 : 안타깝지요. 안타깝고……

南 : 우리는 소상히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하면서 보았습니다.

南 : 전금철 단장선생 말이지요.

우리 마침 자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北 :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南 : 마주보는데 서로 面을 친숙하게 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보았는데 양쪽으로 안경끈 분들이 한쪽으로 모였으니까 양쪽으로 나누고 또 新民黨 소속이고 이쪽은 國民黨 소속이고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 있어요.

北: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화합적이겠지요.

南: 서울에 요즘 특별한 거는 國際通貨基金 회의하고 또 IBRD 世界銀行總會가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바쁘지요. 그래서 國際行事 큰 게 있어 가지고 요즘 준비때문에 상당히 사실 서울은 복잡합니다.

北: 平壤에도 지금 保險大會가 좀 있고……

南: 아, 그래요?

우리는 定期國會가 9月 20日부터 열려가지고 지금 한창 豫算國會를 금년에 연말까지 갖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서로서로 이렇게 마주 좀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北: 말씀하시오. (웃음)

지금에 아주 北과 南사이에 큰일을 했는데 赤十字 여기서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걸 成果를 애겨야 되겠다…… 이걸 잘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건 일치하는데 그러자면 여기에 자연 對決狀態로부터의 완화에로 이것이 되어야만 해결되리라……

南: 서로 信賴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것 그건 기본적 입장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統一을 目標로 해서 어떻게든지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北: 그래야 얻은 成果가 공고하게 擴大되고 發展한다……

南: 이게 점차적으로 交流가 되고 이루어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基盤이 구축되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 이제 일 시작해 볼까요?

北: 그러지요.

南: 전선생, 個人이나 國家의 歷史의 마디에는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攝理가 있다고 그러는데 記者분들도 있고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48年度에 貴側이나 우리가 따로따로 政府를 수립하다 보니까 攝理的으로 사팔뜨기다, 한쪽만 눈을 떴다, 統一을 하기 위해서 두눈을 떠야 된다, 이것이 팔팔하게 눈을 떠라, 이래서 사팔뜨기는 팔팔하게 눈을 뜨는 88年이 統一의 氣運이다, 그런 기운이 지나온 게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여러 行事が 多角的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時點에서 우리의 努力만 있으면 統一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팔팔하게 눈을 뜨는……(웃음)

北: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지금 당장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래요 팔팔……

南: 예, 그렇지요. 順序가 있으니까 더 앞당기자는 것이지요. (웃음)

北: 앞당겨야 하고 統一하는 것 좋습니다.

당기면 좋습니다. 88年 뭐……

南: 그것도 과학에는 맞지 않는데 그런 攝理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北: 그래서 거기 靚觀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對決을 해소하고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거라, 그점에서 우리 使命이 작지 않다…… 오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南: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北 : 날씨가 좋은 것 만큼 회담도……

일 좀 시작해 봅시다.

南 : 非公開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北 : 그쪽 의견대로 합시다.

公開로 하든 非公開로 하려면 비공개로 하고.

南 : 지난번에는 하나의 개최식 같은 그런 1次會議였으니까 公開로 하고 오늘 여러가지 成果를 많이 거양하기 위해서 또 너무 記者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까이 계시면 또 조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非公開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北 : 그렇게 비공개로 합시다. 非公開로 차분히 이야기좀 하는게 좋겠습니다.

南 : 예! 협조를 해주세요.

雙方이 基調發言을 해야할 테니까 지난번에.

北 : 지난번에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權先生이 먼저 하십시오.

南 : 그럼 먼저.

北 : 좋은 말씀 하십시오. 좋은 선물 가져왔겠지요. (상호 웃음)

먼저 하실라는 것 보니까 좋은 案을 가져온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南 : 최선생 얼굴 좋아지신 것 같아요.

北 : 전에는 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말이에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오늘 成果가 있을 것 같습니다.

南 : 전단장께서 맘을 어찌 풀리시는지.

北 : 이런데서 부러 풀리겠습니까?

거기 그쪽에야 남쪽인 것 같아서 더운데 단련됐고 우리는 한데 있던 사람이니까……

北 : 전디는 데는 그쪽보다 못하거든 (웃음)

회담을 좋은 場所에서 해야겠는데 좁은 데서 하다보니까……

南 : 아니 豫備會談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本會談할 때 어차피 왔다가야 하기 때문에……

北 : 豫備會談할 때부터 좋은 자리에서 하면 좋지요. 뭐……

南 : 本會談할 議題가 문제지, 좋은 議題가 選定돼야지……

南 : 그러면 우리 立場을 담은 基調發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側 基調發言)

전금철 團長을 비롯한 代表 여러분!

本人은 지난 7月 23日 閉幕된 歷史的인 南北國會議員들의 豫備接觸에 이어 오늘 두번째로 實側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最近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 등 一連의 南北對話가 새로운 局面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鼓舞的인 事態發展 속에서 南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重大한 任務를 안고 實側 代表들과 마주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南과 北의 온 겨레는 祖國光復 40周年이 되는 올해야말로 民族分斷의 아픔을 克服하고 이 강토에 平和와 統一의 基礎를 튼튼히 다지는 歷史的인 轉機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接觸을 銳意 注視하고 있습니다.

半世紀 가까이 國土가 兩斷되고 戰爭으로 인한 不信과 敵對感이 팽배한 오늘의 與件 속에서 南北韓이 對話를 통해서 政治的 和解를 圖謀하고 平和와 統一을 達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問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은 어떻게 해서든지 40年동안 끌어온 分斷의 悲劇을 清算하고 和合과 統一로 가는 길을 開拓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力量을 쏟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같이 이 時代를 살고있는 歷史의 主人으로서 그리고 各其 南北韓 6千萬 同胞들의 뜻을 代辯하는 政治人으로서 마땅히 自己의 所任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南北國會會談은 바로 이러한 共同의 目標를 향해서 雙方 政治人들이 可能한 모든 지혜와 力量을 動員할 수 있는 훌륭한 廣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雙方은 이미 第1次 豫備接觸에서 이와같은 基本 趣旨에 다같이 共感을 表示하고 南北國會會談을 早速히 開催하자는데에 意見을 모았읍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난번 接觸에서 雙方이 各其 내놓은 提案을 中心으로 진지한 討議를 進行하였으며 많은 問題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았읍니다.

사실 南北國會會談의 議題問題와 雙方 首席代表의 級問題 그리고 第1次 場所를 서울과 平壤 中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세가지 問題를 除外하고는 대부분의 節次問題가 解決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第1次 豫備接觸에서 우리가 거둔 合意事項을 整理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제, 南北國會會談은 代表會談 形式으로 한다.

둘 제, 南北國會會談 代表團은 各各 11名의 代表로 構成한다.

세 제, 南北國會會談은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한다.

네 제, 第1次 南北國會會談의 開催日字는 雙方 豫備接觸이 終結되는 때로부터 1個月 이내로 한다.

다섯제, 南北國會會談의 內容의 記錄, 報道 등은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

여섯제, 雙方 代表團의 서울·平壤 往來節次, 便宜保障 등은 종래의 南北對話 慣例에 따른다.

이상의 여섯가지 合意事項들은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生産해 낸 成果라는 意味에서 본다면 대단히 소중한 것이며, 나는 이것이 앞으로의 對話展望을 밝게 해주는 훌륭한 先例가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會議에서 우리가 討議·解決해야 할 나머지 問題들에 대하여 우리의 立場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雙方間에 중요한 見解差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議題問題라고 봅니다.

우리側은 「統一憲法을 起草하기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 機構를 構成하는 問題와 이에 따른 統一基盤 造成에 必要한 事項」을 南北國會會談의 議題로 定할 것을 提議하였습니다.

한편 貴側은 會談議題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와 우리側이 提議한 統一憲法 制定을 위한 機構 構成問題도 反對하지 않겠다는 意見을 提示하였습니다.

이상의 雙方 提案을 놓고 볼때 貴側이 原則적으로 統一憲法 制定을 위한 機構 構成問題를 議題로 定하자는 우리側의 主張을 받아들였다는 事實을 考慮한다면 이제 나머지 중요한 爭點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發表問題 하나로 壓縮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 問題에 관해서 雙方間에 진지한 意見交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可能하다면 오늘중에 이 問題가 圓滿히 妥結되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오늘 이 問題와 關聯한 우리側의 立場을 좀더 자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側은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問題를 南北國會會談의 議題로 上程하는 것이 不必要하며 또 適切하지 못하다는 立場을 이미 闡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側은 南北間에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再發을 防止함으로써 이 땅에 恒久的인 平和를 다지는 일은 雙方의 責任있는 當局間에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問題라는 點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貴側도 잘 아는 바와 같이 戰爭과 平和에 관한 問題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그 實際的 權限과 責任을 갖고 있는 該當 政府當局이 管掌하고 處理하는 것이 普遍的 慣例로 되어 있습니다.

南北間의 不可侵問題도 그것이 諸般措置가 뒤따르는 實効性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權限과 責任을 갖고 있는 雙方 政府當局間에 討議·解決되어야 할 중요한 課題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우리側은 이미 오래전부터 南北轉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早速히 實現할 것을 貴側에 提議하고 거기에서 緊張緩和와 戰爭防止 등 南北間의 時急한 當面問題들을 서로 진지하게 協議·解決할 것을 促求하여 왔습니다.

貴側도 지난번 第1次 接觸에서 不可侵 問題를 비롯하여 緊張緩和와 戰爭防止 問題가 雙方의 政府當局間에 解決되어야 할 問題임을 솔직히 認定하였습니다.

따라서 貴側이 眞實로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目的으로 우리側과의 不可侵宣言을 採擇하고자 한다면 구태여 南北國會會談에 그 問題를 上程하는 번거로운 節次를 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貴側 當局으로 하여금 우리 政府當局이 要求하는 會談에 빨리 同意하도록 促求하는 것이 合當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不可侵 問題를 包含하여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信賴造成 問題가 단순한 約束이

나 宣言만으로 끝나지 않고 具體的인 實踐을 통해서 確認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會談場 안에서나 밖에서 平和와 統一에 대하여 수없이 強調하고 많은 意見을 주고 받았읍니다.

7·4 南北共同聲明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과 北은 다시는 싸우지 말며 民族의 和解와 統一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 나가자는 데에도 굳게 約束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雙方의 이같은 約束과 다짐이 그동안 얼마나 지켜지고 實踐되었습니까?

實例은 國會會談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이 發表되기만 하면 南北間의 不信과 戰爭威脅이 쉽게 解消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主張은 우리의 現實에서는 아무런 說得力을 發揮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싸우지 말고 和解하자고 다짐해도 그것을 實踐하는 行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合意書는 하나의 空虛한 裝飾에 不過할 것입니다.

오늘날 南北間에 存在하는 緊張과 不信은 基本的으로 오랜 理念的 對立과 相互斷絶 狀態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民族이 좁은 領土안에서 經濟的·文化的 紐帶까지 完全히 끊고 半世紀 가까이 不信과 對決 속에 살고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現實입니다.

머구나 아직도 흩어진 家族·親戚들 사이에 安否便紙 한장 주고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南北韓의 實情입니다.

이러한 非正常的인 關係를 打破하는 根本的인 措置가 없이 南과 北이 서로 싸우지 말자는 約束이나 한다고 해서 해묵은 緊張이 풀리고 不信이 解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뿌리깊은 緊張과 不信을 根源的으로 清算하는 길은 어떤 共同宣言을 採擇하는 것과 같은 形式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南北關係의 모든 分野에서 和解와 交流와 協力을 具體的으로 實踐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南과 北이 지금이라도 1千萬 離散家族들의 自由로운 往來와 再結合을 許容하고 物資交流와 經濟協力을 實施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수백종의 共同宣言을 採擇하는 것 보다도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信賴造成에 더 効果的인 寄與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立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南北韓 社會의 開放,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그리고 眞正한 緊張緩和를 實踐하기 위해 여러가지 方案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當局이 1982年初에 實例에 이미 提議한 서울·平壤間의 道路連結·開通, 雙方 定規放送의 自由로운 聽取, 政治人·經濟人 등 各界各層 人士의 相互親善訪問 實施, 民族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한 民族史 共同研究, 日用生活品の 交易實施, 自然資源의 共同開發 및 共同利用, 非武裝地帶內 共同競技場 建設, 雙方 軍事實任者間의 直通電話 設置·利用 등 20個項의 示範的 事業方案이 바로 그 代表的인 것입니다.

南北間에 理解와 信賴를 造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40年間 굳게 닫혀있는 門을 열고 서로 마음을 통해야 합니다.

南北의 同胞들이 지금처럼 서로 담을 높이 쌓고 接觸과 往來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期待하는 眞正한 信賴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서로 秘密이 많으면 疑心도 생기는 것이 人間社會입니다.

참혹한 同族相殘을 겪은 南北의 同胞들 사이에 고질적인 不信과 誤解를 푸는 지름길은 서로 相對에게 自身을 감추지 말고 솔직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方法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南北經濟會談에서는 雙方間에 物資交流와 經濟協力事業을 實施하는 問題를 비롯하여 京義線 鐵道連結 問題, 남쪽의 仁川港과 북쪽의 南浦港을 서로 開放하는 問題 등에 合意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南北을 막아놓은 分斷의 壁을 뚫고 鐵道를 連結하고 港口를 開放함으로써 그 길로 사람과 物資가 오고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南北赤十字會談에서는 離散家族들의 自由往來 問題가 合意되었고 특히 光復 40周年을 기해서 一部 離散家族들의 故鄉訪問과 藝術公演團의 交流가 이루어졌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象徴的인 事業에서 머물지 말고 離散家族 모두가 實際로 自由로운 故鄉訪問과 家族 再會를 實現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 놓아야 하겠읍니다.

86年 아시안게임과 88年 올림픽大會를 主催하는 우리나라 體育인들이 그러한 歷史的인 國際行 事를 바로 눈앞에 두고 南北間에 아직도 親善競技 한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不幸한 일입니다.

우리는 南北韓이 經濟交流와 協力에 合意하고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을 相互 交換할 수 있을만큼 對話가 進展되고 있는 마당에 雙方 體育인들의 相互交流와 親善競技大會를 開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問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機會있을 때마다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強調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앞세우면서도 이 程度의 開放과 交流도 實踐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말과 約束은 믿을 수 없는 口號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南과 北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侵略하지 말자는 約束과 함께 그 約束을 確固히 뒷받침하는 實踐的 措置도 아울러 取해야 한다는 立場입니다.

우리 大統領께서는 올해 光復節 慶祝辭에서 不可侵의 命題는 6千萬 우리 겨레의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課題임을 力說하고 南北韓의 두 當局間에 相互 不可侵問題를 비롯하여 南北韓의 正常的인 相互關係를 여는에 必要한 諸般 問題들을 廣範圍하게 討議·解決하자는 것이 우리 政府의 立場임을 強調하였읍니다.

이것은 우리側이 不可侵問題뿐만 아니라, 南北關係 全般과 民族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和解와

交流와 協力を 實踐함으로써 眞正으로 緊張緩和와 信賴造成에 努力하겠다는 意志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現時點에서 南北國會會談을 통해 不可侵에 관한 儀禮的이고 政治的인 宣言을 發表하는 것이 별로 뜻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보다는 雙方의 責任있는 當局間에 不可侵問題를 包含해서 南北間의 信賴造成과 平和定着을 위한 廣範圍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기 위해 實効性있는 會談을 開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議題問題에 대한 우리側의 立場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實側이 不可侵宣言 問題를 더이상 國會會談 議題로 固執하지 않는다면 오늘 接觸에서는 議題問題도 쉽게 妥結되리라고 싶습니다.

이밖에 우리가 오늘 討議해서 決定할 問題는 雙方 首席代表의 級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와 第1次 南北國會會談의 場所를 서울과 平壤 중 어디를 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입니다.

우리側은 雙方 首席代表의 級을 좀 여유있게 定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側에서는 國會議長이 常任委員長級 이상의 國會議員을 首席代表로 任命하고 實側에서는 이에 相應하는 代議員을 任命하면 될 것입니다.

第1次 南北國會會談의 開催場所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側은 서울로 할 것을 거듭 主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第2次 接觸에 임하는 우리側의 立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南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諸般 節次問題에서 사실상 대부분 合意를 보고 다만 몇 가지 問題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온 겨레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는 南北國會會談이 빨리 實現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雙方 代表들의 努力과 協力如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오늘 우리들의 두번째 接觸은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온 겨레 앞에 지닌 莫重한 責任과 使命을 깊이 認識하고 誠實과 雅量을 가지고 이 豫備接觸을 圓滿히 妥結함으로써 南北國會會談을 하루빨리 成事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發言을 끝내겠습니다.

注意깊게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北 :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요.

(北側 基調發言)

오늘 우리는 나라의 平和와 統一을 바라는 내외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北南國會會談을 탄생시키기 위한 崇高한 使命을 안고 두번째로 會談場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國會會談 1次 豫備接觸에서는 本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회의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예비접촉에서는 많은 문제들에서 合意를 보았으며 일부 문제에서도 쌍방의 견해가 거의 접

근되어 合意點을 찾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로 의견이 상치되어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던 本會談의 議題問題 討議에서도 우리는 귀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양보와 아량의 정신을 발휘한 결과 회담의제물 은 거래의 기대대로 합의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번 接觸에서 중심화제로 상정되었던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문제는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문제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측에서는 지난 1차 예비접촉에서 우리나라의 北과 南사이에 존재하는 대결상태와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통감하고 非正常的인 緊張狀態를 가시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議題討議 過程에 國會가 不可侵問題를 다룰 수 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주장과 理由는 어떻든간에 쌍방이 의제문제에서 合意할 수 있는 기초를 발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雙方이 다같이 서로 양보하는 立場에 서서 본 회담을 빨리 성사시키려는 성실성만 보인다면 議題問題에서도 쉽게 합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두번째 회담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귀측에서는 이제 방금 한 基本發言에서 일부 實務節次 問題에서는 우리의 주장에 접근해온 문제도 있지만 아직도 本質的 問題에서는 의연히 지난 접촉때의 견해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측도 인정하다시피 우리나라의 緊張狀態는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일대 不幸입니다.

우리나라의 북과 남은 서로 동족인데도 敵對國 이상의 침예한 對決關係에 있습니다.

전쟁의 함시적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戰爭이 근원적으로 청산된 평화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불안정한 停戰狀態에 있으며 엄중하게는 백수십만의 청장년들이 分界線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누고 있는 準戰時狀態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緊張狀態를 가지고 전쟁을 방지하는 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파멸에서 구원하고 平和統一의 기초를 마련하는 침예하고도 절박한 問題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정부에서는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平和의 기초우에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정전직후에 벌써 우리 정부는 武力을 대폭 축소하고 北과 南이 平和狀態로 전환함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平和的인 발기를 하였습니다.

60년대에 수많은 平和와 統一方案을 提起한데 이어 70년대에 와서 우리는 祖國統一의 3大原則을 제시하고 北南對話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5개항목의 제안과 祖國統一의 5大方針을 제시하였을뿐 아니라 80년대에 들어와서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

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을 위해 획기적이고도 現實的인 方案들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北南國會會談을 열고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데 대한 우리의 이번 제안도 바로 민족의 운명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하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平和政策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不可侵에 관한 문제는 현시기 우리나라에서 침예한 軍事的 緊張狀態를 가시고 平和를 보장하며 統一의 前提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도 焦眉의 문제로 됩니다.

北南國會會談을 열고 여기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데 대한 우리의 발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와 根據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不可侵問題는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된 중대하고도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國會와 같은 권위있는 政治機關이 마땅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國會는 인민의 의사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法을 制定하고 국가의 중요한 對內外 政治方向과 原則을 規制하는 제일 권위있는 政治機構입니다.

지금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민족의 관심사는 戰爭의 危險을 막고 동족끼리 싸우지 말며 平和롭게 사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의 위협앞에서 민족이 파멸하느냐 생존하느냐 하는 우리나라의 엄혹한 현실은 민족성원 모두가 우국과 구국의 애국심을 안고 주저함이 없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거족적인 위업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政治의 基礎는 국민의 의사이고 法은 政治의 實現手段입니다.

인민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平和를 바라고 있으며 정치는 戰爭路線에서 平和路線으로 政策轉換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고 平和를 보장하는 것은 민족전체의 의사를 집대성한 최대의 政治問題로 나서고 있으며 모든 문제에 앞서 존재하는 우리 겨레의 死活的인 중대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立法活動을 통해 정치를 수행하는 國會,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권능높은 國회가 민족의 이 重大事를 외면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北과 南의 國會는 옹당 이 문제에 자기의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다른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모든 權威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인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國會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不可侵問題를 外面한다면 현실에서 國회나 정치인들이 서야 할 위치가 어디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形式論理에 포로되어 현안문제외 해결을 외면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엄혹하며 우리 國會와 政治人들의 責任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둘째로 國會會談에서 不可侵問題를 協議하고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것은 國회의 기능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國會의 權限과 機能이 다르고 特性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國會의 기능이 아무리 다양하고 특성이 있다하여도 國會가 立法活動과 그밖에 여러가지 政治, 外交活動을 한다는 점에서는 어디에서나 공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不可侵問題는 國會의 이러한 보편적인 권능과 기능에 완전히 부합되며 國會會談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것은 國會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모순점도 없습니다.

지난번 접촉때에 이미 명백히 한바와 같이 우리가 제안한 불가침문제는 일반적으로 戰爭이나 平和에 관한 문제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論하자는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發表 問題는 그 의미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分裂된 동족간에 싸움을 하지말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불신 대신에 信賴를 回復하고 대결 대신에 和解와 團結을 도모하자는 문제이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전제와 기초를 마련하자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순수 敵對國이나 交戰 雙方間에 전쟁문제를 다루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이기전에 폭 넓은 政治問題이며 심오한 민족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귀측 憲法이나 다른 法律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번 접촉에서 귀측도 이미 인정한 사실입니다.

셋째로, 國會會談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 行政當局에서 不可侵宣言을 채택하는 문제를 용이하고 담보있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귀측은 불가침문제는 실제적인 執行權을 가진 行政當局에서 하고 國會에서 批准同意를 하면 되지 무엇때문에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걸쳐 하겠는가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제안의 참된 의미를 잘 理解 하지 못한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理致에 맞으면 빨리 성사되는 법입니다.

國會會談에서 불가침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고 그에 기초하여 當局者會談에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平和를 保障하는 문제를 가장 마르고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不可侵問題도 國會는 國會로서 할 몫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1次接觸 때에도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는 國會會談에서는 不可侵의 필요성을 위한 해결방향과 원칙을 규제하며 當局者會談에서 실질적인 집행조치를 예견하는 不可侵宣言을 採擇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共同宣言을 발표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國會의 立法機能에 맞게 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行政當局의 執行的 機能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상방 國會가 불가침에 관한 原則的인 問題를 규제하고 행정당국이 활동할 수 있는 대전제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行政當局에 不可侵宣言을 채택할데 대한 義務性을 지우고 法的擔保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행정당국이 나서 한 일을 국회가 사후 처리하는 식으로 하면 일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안은 도달하려는 平和의 目標에 가장 곧바로 가는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예도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는 것이며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우 순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國會會談에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하는 問題는 法論理로도 妥當性이 있고 實踐的으로도 現實性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진정으로 전쟁전야에 있는 우리나라의 엄혹한 현실을 우국의 立場에서 본다면 우리의 提議를 외면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쌍방이 互相 理解와 信賴, 讓步의 좋은 분위기속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면 지금 남아있는 意見相異들도 빨리 타결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제부터 北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實務節次問題에 관한 合意書 草案을 내놓고 하나하나 합의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측이 준비한 합의서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北南國會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實務節次問題에 관한 合意書(草案)

우리나라에서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공고한 平和를 보장하며 平和統一을 促進시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運命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焦眉의 과제이다.

北과 南의 政治人들 앞에는 나라의 平和를 지키며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歷史的 課業이 나서고 있다.

이로부터 쌍방은 北南國會會談이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實務節次問題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會談形式

國會會談은 國會代表會談으로 한다.

2. 代表團構成

ㄱ) 代表團 團長은 國會議長으로 한다.

ㄴ) 代表團 團長을 포함하여 각 政黨出身 議員 11名으로 구성한다.

ㄷ) 代表團 隨員은 20名, 同行記者는 50名으로 한다.

3. 會談場所

ㄱ) 北南國會會談은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

ㄴ) 第1次會談은 평양에서 가진다.

4. 會談議題

의제는 쌍방이 내놓은 案을 다같이 의제로 설정하되

ㄱ)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할데 대하여」

ㄴ) 「統一憲法制定을 위한 協議機構 構成問題에 대하여」로 한다.

5. 會談運營

ㄱ) 회담은 원칙상 非公開 會談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雙方의 合意에 따라 公開로도 한다.

ㄴ) 會議記錄은 錄音과 錄音, 速記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초청자측은 상대측 지역까지 錄音, 텔레비존 中繼線을 보장한다.

6. 會談報道

會談에 대한 報道는 각기 便利한대로 하며 합의를 본 사항들은 共同合意文件 形式으로 發表한다.

요점에서 아까 그쪽에서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고 앞으로 調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합의하고 조금 달라진것 같은데 『會談에 대한 報道는 각기 便利한대로 하며 合意를 본 사항들은 共同合意文件 形式으로 한다』 이게 지난번에 합의된 건데……

7. 來往節次

ㄱ) 회담관계로 북과 남을 來往하게 되는 인원들의 身邊安全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 관계당국이 身邊安全擔保聲明을 발표하고 그 文本을 사전에 교환한다.

ㄴ) 來往人員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會談代表들은 信任狀을, 隨員들과 記者들은 身分證明書를 휴대하도록 한다.

ㄷ)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에는 寫眞이 첨부된 名單을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 명단에 근거하여 對照 確認한다.

8. 便宜保障

대표단과 기자들이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기간의 交通手段과 宿食을 비롯한 모든 便宜는 招請者側서 無料로 보장한다.

9. 通信連絡手段

會談을 위하여 쌍방 국회사이에서 國會會談專用으로 평양—서울 直通電話를 運營하도록 한다.

10. 第1次 國會會談 날짜

第1次 北南國會會談은 豫備接觸이 끝난 때로부터 1個月안에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實務者들 사이에서 協議 決定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北南國會會談
豫備接觸代表團 團長
전 금 철

大韓民國國會
北南國會會談
豫備接觸代表團 首席代表
權正遠

1985年 9月

날짜는 이제 차후에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會議運營을 쌍방이 各其 자기의견 내놓았고, 그런데 여전히 基本問題로 되어 있는 議題問題, 여기서 膠着돼 있는데 이부터 討論하고 나머지 問題는 간단하니까 그건 뒤에 討論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떻습니까?

南: 時間도 한 時間 지났는데 조금 쉬어가면서 하십시다. 國會會談인데 餘裕있게 뭐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과일 많이 갖다왔는데 만날 그냥 놓고 지나갈게 아니라……

南: 가지고 온 애들 성의를 봐서라도 조금 습시다.

北: 그럼시다.

(雙方代表들, 과일과 차를 들며 잠시 담소)

南: 북쪽에서도 과일이 많이 나오니까?

北: 아, 물론 많이 나옵니다.

北: 3個郡이 「과일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北: 남쪽지방에 비가 많이 왔죠?

南: 예, 한번 좀 비가 왔어요.

北: 벌일 없습니까?

南: 뭐 큰 피해는 없습니다. 댐施設이 돼있어서 氣象通報를 듣고 물을 빼버리고 조절이 잘 되어서……

南: 과일이 뭐가 많이 납니까?

北: 배, 복숭아, 사과…… 사과가 대구쪽에 많이나요?

南: 過去에는 그랬는데 요즈음은 全羅道에서도 많이나요.

南: 요즈음은 감귤이 많이 나요.

南: 過去에는 주로 남쪽에 나던 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나와있어요.

北: 權先生 지난 會談에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다른 會談과는 달라서 이건 政治會談이니까, 政治人들이 모인 場所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하자……

南: 과일 좀 더 드시고 하십시다.

南: 우리는 국회에서 회의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停會라는걸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조금 쉬어가면서, 停會를 한번 해가지고……

北: 마음의 여유를 두면서 하는게요. 그만큼 오늘 참 좋은 氛圍氣입니다.

北: 아직 見解가 상치되는데 좀 쉬면서 그쪽에서 自己意見을 修正할건 좀 修正해 가지고 다음에 會議할때는 決定을 한다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誠實과 雅量을 가지고 한다는데 무슨 놈의 誠實을 보인게 하나나 있는가, 무슨 雅量을 보인게 하나나 있는가, 자기 主張을 그대로 固執하고서야 誠實이니 雅量이니 말할게 뭐 있는가 그게 되겠습니까?

南: 접시에 주스 담을 수 없고 컵에 과일 담을 수 없듯이 이 會談에 어느 意見이 가장 적합하냐?

그것이 우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北: 벌써 이야기할 것 다 한 것 같습니다.

南: 아니, 전금철團長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내가 좀 理論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北: 아 理論적으로는, 여기서 理論 必要 없습니다.

南: 아니 이론적으로……

北: 말하자면 戰爭이나 平和냐 하는 엄혹한 情勢가 造成되었으니까 政治人들이나 國會가 가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우리로서도 할 몫이 있으니까 하자 뭐 이러면 다예요.

南: 서로 討論을 해 봐야죠. 왜냐하면 그쪽생각과 우리생각이 있으니까……

北: 그래도 現實을 反映한 거로……

南: 討論을 해 봐야죠.

南: 玉童子를 지금 낳으려고 하는데 웃하고 구부하고 신하고 다 마취가지고 나와버리니까, 사이즈가 아마 調節되어야 할 것 같아요.

北: 우리 人民들이 지금 우리 政治人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南: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北: 人民들의 요청에 우리가 副應해야죠.

北: 이렇게 하면 玉童子는 커녕…… (웃음)

北: 내가 조금 理解하겠는데 제가 조금 理解…… 제 發言끝났죠. 제 基本發言 끝났는데 議程에 대한 意見, 제가 말하자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順序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權先生 發言줄거리와 全體 立場이 좀 어지럽고, 龍頭蛇尾格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위는 말하자면 龍으로 되고 밑은 다르게 되고 말았어요. 무슨 뜻인가? 뭐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反復을 한다면, 요점을 이야기 한다면 좋은 이야기 많더구만요.

『和解, 平和와 統一을 향한 길에서 하나의 歷史的인 轉機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이 얼마나 좋습니까?

國會 豫備接觸 團長으로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걸 무슨 行政當局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바란다』하는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 緊張狀態를 緩和하는 問題가 아주 긴급하고도 중대한 問題라고도 그런 要點의 이야기도 했어요.

南: 물론이죠.

北: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論理대로 한다면야 자연히 國會가 그렇게 緊要하고도 重大한 問題 또 올해로 여기서 歷史的 轉機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니까 主人이 되어서 그렇게, 그런 任務와 使命을 걸어 안고 그렇게 하자 하면 결론이 좋겠는데 뒤에가서는 뒷꼬리가 다르게 돌아갔다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안하고 저쪽으로 넘기시다』하는 것으로 됐으니까 龍頭蛇尾格으로 되었다는 거요.

全體 제가 느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重大한 問題, 原則的인 問題에서 脫線한 것 같아요.

權先生 그래서 내가 그 問題에 대해서 이야기할것 많지마는 제가 말씀좀 드리겠어요.

原則的 問題란 뭐인가?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最高人民會議를 열고 貴側에 보낸 便紙內容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檢討하고 적어도 우리가 最高人民會議에서, 主權을 代表하는 最高主權機關인 人民代表機關이요, 最高政策機關이요, 最高指導機關인 國會에서, 最高人民會議에서 이걸 決定할때야 審議하고 決定하고 편지를 보낼때야 상당정도로 깊이 研究하고 보냈다는 거야 明白하지 않을까요? 明白하죠. 充分히 檢討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貴側에서 보면 우리 편지 자체도 잘 研究한것 같지 않아. 그리고 報告도 잘 研究한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接觸때 우리가 또 明白히 했습니다.

그쪽의 國會의 進行이 어떤 것이라는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行政當局이 어떤 機關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난번에 우리가 國會에서는, 國會會談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내자, 그리고 當局에서는 어떤걸 만들어 내게 하자 하는걸 明白하게 定式化했어요. 便紙에 그것이 明記되어 있고.

이건 뭐인가? 다시 그걸 반복하겠는데 表現에서 봅시다. 表現에서, 『國會會談에서는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發表할데 대한 問題』 共同으로 發表하는것 그다음에 行政當局에서는 그들의 會談을 열고 不可侵宣言을 채택하는 問題 하나는 그런 宣言을 發表하고 하나는 宣言을 채택하자, 거기에 벌써 差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거는 國會의, 말하자면 立法機關인 國會의 權能과 使命, 性格에 부합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요, 저쪽 것은 行政當局의 性格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行政當局 會談을 열고 하자는 것, 이건 우리가 거기서 반긴 반겼습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설득하지 마십시오. 하자는 게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지난번 어떤 論理를 가지고 나왔는가, 편지에서도 마치 우리측에서 그쪽의 國會機能이나 모르는 것처럼. 이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對話 相對方을 尊重하는게 못됩니다. 왜 우리가 그쪽 機能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權先生 發言에서 그쪽에서는 『戰爭問題는, 和平에 關한 問題는 國會가 안하고 行政當局에서 하기로 돼있다. 國會는 批准權밖에 없다.』 그러나 行政當局에서 하는 것 國會批准權 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압니까? 그쪽 國會 몇條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法律 96條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抵觸되지 않도록 제기했지요. 우리가 어디 行政當局에서 하는 그런 條約과 같은거 만들자고 했습니까? 國會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國會機能에 맞는 그런 文件을 만들자…… 그런 하나의 政治的, 法的 性格을 띠는거…… 그쪽에서 요구하신다면 어떤 文件을 요구하시든 그렇게 맞게 합시다. 그거…… 國會의 權能과 機能과 性格에 맞는거 만들자, 우리가 어디 무슨 國會會談에서 行政當局에서 하는 어떤 行政的 條約 만들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벌써 그 國會機能을 가지고 이 문제물 토의 앉겠다는게 맞지 않는다는게 맞지 않습니까? 하기는 어쨌든 지난번에 그쪽에서 남들됐는지 국회에

서 토의할 수 있다 하는말 두어번 얘기했으니까. 이젠 해결된 셈입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철회한걸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다음은 當局問題인데요. 當局問題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우리 하자는데 아닙니까? 하자면 우리 잘 합시다. 잘 합시다. 아까 발언에서 權先生 發言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이해됩니다.

말하자면 國會에서 하는 이거는 그것은 形式問題이고, 形式問題고…… 말하자면 이젠 큰 意義가 없는거고, 行政當局에서 하는게 그게 基本이고 實踐性 있는거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길 합니다.

그 뒤로부터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따라서 거기에 말기자 이젠 하지 말자 이런 뜻인것 같애요. 그러나 지난번 보다 조금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이젠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건 좀 후퇴한거 같애요. 그럼 봅시다. 國會에서 한것이 어제 形式에 불과할까? 그럼 그쪽 國會가 그렇게 권위가 없고, 권능이 없고 그렇게 무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 國會機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도 立法機關은 분명하고, 最高政策機關은 분명하거든요. 國民이 意思를 제출해서 政策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事實 어디서나 이렇지요. 어느 國會나 이점에서 보편적이지요. 이런 일을 다 하지요. 다 합니다. 이러한 機關, 國民의 代表機關, 人民의 意思를 代辯하는 이 國會, 우리 最高人民會議과 그쪽 國會가 共同의 그 어떤 活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었을때, 그게 왜 形式的입니까?

그게 왜 맥이 없는 것입니까?

南: 아니 전선생님.

北: 발언하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듣겠는데, 대화니까, 대화는 先後가 있으니까……

南: 對話를 하자면서……

北: 團長의 말이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北: 이젠 國會로서 國會로서의 그 어떤 共同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人民의 意思를 人民의 意志와 요구를 반영해서 만든 共同의 文件이니까, 이거야 어길 수 있습니까? 어길 수 없습니다.

또 이런것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말하자면 行政當局에 위임하는 걸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行政當局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行政當局의 일이 잘된다는 거 내가 몇가지 논거하겠습시다. 우선 이런 共同의 文件을 合意해 놓으면 이젠 무엇인가 벌써 共同의 法과 같은 이런 원칙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걸 行政當局 어디서든지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이행의무를 줄것입니다. 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젠 좋습니다.

다음 둘째로 어찌서 거기서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말하자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不可侵이라는 原則과 方向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行政當局에서 不可侵에 관한 일을 實踐的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기초가 되고 하나의 초석이 되죠.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세계로 우리가 國會에서 人民의 의사를 대변하는 國會에서 共同의 이런 文件을 만들어 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대화의 분위기가 좋아지죠. 대화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아주 호상이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자, 이런 세가지 요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當局에서 이 걸…… 잘되죠 뭐…… 當局에서 하자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實踐性 좋습니다. 실천문제 중요하지요. 결국 實踐하자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런 방향문제를 규제해주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인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행정당국이 실천하기 위한 행동같은 것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生産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과거 실제 대화에서 어떠했습니까? 과거때에도 해봤습니다. 안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祖國統一 3大原則 얼마나 좋습니까? 民族共同의 原則입니다. 北과 南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民族共同의 原則이요…… 法이라 하면 이것이 最高의 法이지요. 北과 南이 다같이 이행해야 할 共同의 最高法이지요. 아주 좋은거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잘 안됐거든요, 自主原則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南: 자 우리 意見을 교환하면서 합시다.

南: 교환하면서 합시다.

北: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과거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먼저 국회에서 하자 국회에서 먼저하고 하면 저쪽에서 잘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국회에 비준을 제기하면 이걸 하루면 됩니다. 쉽게 될 것입니다. 이거 무슨 복잡성이 없지요, 이게 순탄한 길이요, 빠른 길이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당국에서 먼저하면 이게 지름길이 아니라 진부한 고통스러운 길일수 있습니다.

南: 의견을 교환하면서 해야지…… 교환하면서 합시다.

北: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좀 줄이지요.

北: 좋습니다. 대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야 간단한 문제인데, 國會가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저 말아서 합시다. 그게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南: 예,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난 1차회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 합의되었고 이제 議題問題 首席代表의 級 問題 그리고 1次 本會談 場所問題, 이 세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예비접촉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議題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회담 당시에 不可侵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國會會談에서도 논의할 수가 있다하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論議할 수는…… 물론 國會會談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國會會談에서 議題로 채택하는 것은 그것은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

는 결과가 된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側の 그 여러가지 自由民主主義體制의 국회기능과 성격과 行政府와 또 司法府와 立法府의 그 3權分立 原則이라든가 이런데 대하여 전금철 단장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國會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정치적, 법적 이런 성격을 지니고 그것이 일사천리로 되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法을 물론 제정을 하며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꾸어서 하면, 태산준령을 넘어가지고 目的地로 가는 길이 있고 野山을 넘어가지고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야산을 넘어서 쉽게 가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3段階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줄여가지고 두단계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矛盾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리성 면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國會機能과 성격과 이 권능 이런데에 比較해 보며는 이런 어떤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立法機關이기 때문에 法을 제정하는 機關입니다. 그리고 豫算을 심의하는 기관이요 또 條約이나 協定 이런걸 비준 동의하는 機關이 國會라 이겁니다. 물론 政治的인 活動을 하는 것이 國會입니다. 그런데 합리성 면에서 보며는 國會가 이런 共同宣言을 하는 것 보다는 나라를 代表하는 代表機關인 政府當局이 바로 하는 것이 이것은 성격과 기능과 이런면에서 볼때, 물론 行政府가 그것을 집행해야 하지만 이것은 法이 아니라 하나의 宣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이런 의의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런면에서 實踐的으로 옮기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責任과 權限을 가지고 있는 政府當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討議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애깁니다.

이런 입장에서 效率性 面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금철 團長께서 아까 그 우리 國會간에 회답에서 宣言을 하고 政府가 또 協定을 체결하고, 그것이 그쪽의 제도는 그걸로 끝날는지 모르지만 우리 또 國會와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회회답에서 이것을 선언하면 그것이 效力을 갖는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關係機關 當局끼리 이것을 다시 協議를 해가지고 그것이 체결이 되면 그것이 國會로 와가지고 國會의 同意를 받아야 效力을 發生한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애깁니다. 말하자면 이런 접시에다가 국을 담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런 접시엔 과일을 담고 국그릇에는 국을 담고 밥그릇에는 밥을 담아먹어야지, 밥그릇에 국을 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國會會談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나갈려고 하며는 이런 不可侵宣言 문제같은 것은 결국은 政府쪽에 맡기고 우리가 會談을 하는 목적이 됩니까? 결국은 統一을 향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統一을 향해서 거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죠. 쌍방이 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統一을 향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國會는 統一憲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統一憲法 問題를 놓고 論議를 하고 政府쪽에서 不可侵宣言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러가지 統一로 가는 기반을 우리가 하루빨리 造成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評價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줄이고 그리고 時間을 節約하고 그리고 責任있는 政府當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우리는 統一憲法制定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會談을 진행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전금철 團長께서 民族의 생사문제요 이 不可侵問題는 國會의 권위에도 맞는 다루어야 할 이 중대한 問題다. 또 戰爭을 막고 平和를 추구하고 民族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다 하는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原論的이고 基本的인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戰爭과 平和, 戰爭을 없애고 平和를 지향해야 한다. 民族的 課業을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 統一을 해야 한다하는 이런 문제는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 不可侵問題를 반드시 이런식으로 適用을 해서 말씀을 하면 너무 광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부합되지 않는다. 또 國會機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關係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國會會談에서 이걸 發表하고 또 당국이 협정을 체결하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 國會에 와서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3段階 과정을 겪게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의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合意書問題는 물론 草案을 말하는거는 우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얘기가 되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체적인 윤곽과, 一般的인 意見이 집약이 되고 또 合意가 이루어져서 合意書 草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最高人民會議에서 편지보낸 얘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 國會에서 答信을 보낸것도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편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 그런걸 모르고 얘기는 하는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지나친 發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연구했어요 충분히 연구하고 回答을 보냈는데 거기에 거기에 또 統一憲法制定을 위한 協議機構 구성문제와 이에 따르는 統一基盤 조성을 위한 사항을 놓고 會談을 하자하는 식으로 일단 회답을 할때..... 편지에 충분히 說明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自由民主體制에 있어서 이 3權分立, 이런 문제를 조금 이해 못 하신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南: 저는 전선생 말씀중에 이해가 안가는 많은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쌍방소란)

北: 우리가.....(쌍방소란)

南: 내가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역시 統一로 가자는 겁니다.

目標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異意가 없어요. 統一을 향해서 자주 접근해가자, 신뢰를 쌓아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기반을 쌓아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統一憲法을 제정한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國會機能이나 性格이나 모든 걸로 볼 때는 이 統一憲法制定을 위한 기구 구성부터 해가지고 論議해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하는 것은 이제 理解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說明을 누누이 드렸고 이 不可侵問題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政府가 이미 74년부터 5차례에 벌써 不可侵宣言을 직접 정부당국간에 締結하자고 提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의에 응해서 바로 불가침선언문제를 정부당국끼리 논의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 國會會談에서 번거롭게 절차를 여러 단계 밟도록 하지 말자, 結論的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이 그렇습니다. 理解가 되실 겁니다. 충분히……

北: 제가 좀 얘기 할까요.

南: 얘기하다가 중단을 해서……

南: 조금 우리 朴議員 얘기를……

南: 제가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會談을 하는 과정에서 理解가 안가는 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74년 1월 8일날 南北 相互不可侵協定을 締結하자고 우리가 實側에 提案한 바 있고 74년 8월 15일날도 똑같은 提案을 했습니다. 또 79년 1월 19일도 南北韓當局者間에 無條件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不可侵에 관해서 이야기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82년 1월 22일에도 武力 및 暴力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會談을 하자고 우리가……

南: 政府 當局에서 全部……

南: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8월 15일 慶祝辭에서도 우리 大統領이 不可侵宣言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不可侵宣言에 관한 協商을 하자고 提案을 한데도 不拘하고 이를 拒否하다가, 이제 國會會談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얘기를 계속 固執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金先生님이 말씀하실 때 政府끼리 이 문제를 바로 할 때는 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不可侵에 관한 責任과 權限을 實質的으로 가지고 있는것은 政府입니다.

戰爭이나 平和에 관한 직접적인 집행은 정부가 합니다. 그 정부가 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아니하고 國會에서 機能이 좀 다른 立法府에서 이 문제를 자꾸 다루자 라고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앞뒤가 바뀐 얘기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北: 그런데 그건 이해가 되신 겁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提案한 것이 行政府에서 다루는 그런 성격의 文件을 發表하는 것이 아니고 國會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그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南: 國會에서 하자니? 우리 國會會談에서는 이것을 議題로 하지말자 이겁니다.

北: 아니죠 글썽 그런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제안한 것은 어떤 行政當局에서 하자하는 不可侵宣言과 이것이 다르다는 그 자체는 인정한 셈이지요?

南: 다르지 않지요. 똑 같습니다. 우리 체제하에서는…… 똑 같아요. 왜냐하면 國會會談에서 論議했는게 政府쪽에 가서 그건 合意를 봐야하고, 政府에서 合意가 되면 締結을 해서 國會로 와가지

고 同意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國會에서 그것을 하든 政府가 하든 똑같애요 성격이……

北: 아니 제 질문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提案한 國會會談에서 하자고 하는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그 內容과 性格이 정부당국에서 하는 不可侵宣言을 採擇하자는 그 내용과 성격과 다른 걸 우리가 제안했다는 이 자체는 이해가 됩니까?

南: 그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되요. 그것은 국회에서 선언하면 정부에 가서 하고……

南: 같은 나라끼리 뭐, 不可侵宣言의 내용이 다릅니까?

南: 그게 이런 뜻인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말씀올……

北: 우리는 實側 國會가 최고 지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南: 최고 지위가 아닙니다. 3권분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南: 적어도, 적어도 行政府와 동등한 그런 權限을 가지고 있는……

南: 行政府, 立法府, 司法府 동등한 3權分立입니다.

北: 물론 3권분립이지만, 국회는 역시 民意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行政府에 勸告할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어느 국회를 물론하고 立法活動을 基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對外活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南: 정부가 5차례나 하자고 그랬는데, 권고를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北: 특히 오늘까지 이 行政當局者 會談은 열리고 있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조건하에서 행정당국자회담이 빨리 열리도록 하는 그 가장 좋은 方途가 무엇이겠는가……

南: 그건 지금 저쪽에서……(소란)

北: 우리가 國會會談에서 共同宣言을 發表함으로써 행정당국이 불가침에 관한 실제적인 조치를 택하도록 의무를 지우자는 게거든. 의무를 지우면 그 의무를 받아가지고 행정당국을……

南: 그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권고는 할수 있어요. 勸告案 같은 것은 국회가 만들어요. 그걸 정부가 꼭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北: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할 건 뭐인가, 이제 저 新民黨 代表 선생 얘기 했는데 마치 거 平和에 대한 그런 提案을 그쪽에서만 一方的으로 提起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歷史的 事實을 잘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南: 不可侵에 관한 얘기를 자주 고집하시니까, 우리가 不可侵을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 하는 얘기를 제가……

北: 만일 平和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 벌써 우리측에서는 停戰 協定이 締結된 이후에 양측이 對立狀態로 들어간 다음 오늘날까지 계속 平和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南: 그것은 雙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北: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아까 보고에도 얘기 있었지마는 적어도 200전에, 200전에 달하는 그런 統一方案을 제기했고 平和에 대한 제안만 하더라도 수십전에 달합니다. 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南: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北: 貴側에서는 이제 다섯件 얘기를 했는데, 다섯件 정도가 아닙니다.

南: 아니…… 政府가 제안한 게 그렇다 이런 얘가지요.

北: 權先生, 제가 얘기 좀 하겠는데 그렇게 우리 해야될 것 같아요. 문제는 立場과 姿勢問題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말하자면 民族의 重大事로 되었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해결해 달라고 바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입장에 있는가 하는 근본 자세와 입장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만 돼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말하겠지만 어느 일방의 법이나 體制를 絕對化할 수 없다. 우리는 共同의 法이 있는데 3大原則이란 여기서 철저히 立脚한다면 해결할 方途가 다 있다, 方途를 우리 모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마치 우리가 그쪽의 3권분립을 모른다고……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잘못된 게 있습니까? 우리들 얘기하는데 무슨 國會에서 이렇게 하면 行政府에서 무조건적으로 執行한다, 제가 그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까? 勸告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 統一問題, 平和問題, 民族의 運命과 관련된 舉族的인 문제인데, 이거야 조선사람치고 다 관심을 가지고, 다 주어진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걸 왜 당국만 하겠습니까? 이걸 國會도 해야되고 政黨도 해야됩니다. 이걸 自然人도 法人도 다 여기에 관계해야 됩니다.

南: 金先生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말씀중에?

北: 제가 말씀드리고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양의 영향을 발휘해야죠. 政黨이 모여서 北의 정당과 南의 정당사이에 어떻게 雙務的인 접촉이 이루어져서 平和에 관한 문제, 不可侵에 관한 문제를 논할 수 없나? 논할 수 있습니다.

南: 그게 實現性이 없어요. 정당간에 이야기 하는거……

北: 권선생, 이러면 벌써 우리와 그쪽사이에 완전히 근본적인……

南: 왜 그러나, 이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北: 정당이 그런걸 합의해 놓으면 정부가 그걸 고려해야 되거나 참작해야 돼요. 왜냐면 국민들의 의사니까요.

南: 政黨이 그런걸 하는게 政黨이 아니죠.

北: 왜, 그쪽 사회라고 여론을 반영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人民의 意思를 어떤 식으로 반영합니까?

이것도 人民의 意思를 반영하는 방법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걸 완전히 말하자면 근본입장에서

다릅니다.

北: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긴장상태를 완화한다는 문제는 민족적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南: (이구동성으로)물론이지요.

北: 그러면 이 문제를 토의하는데는 우리 국회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말이 나왔지만 정당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단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체 조선민족 전체 조선인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긴장상태를 완화하지 않고서 이대로 그냥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지금 상태대로 계속간다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대포소리가 울리게 되지요. 삼천리 우리 조국강토가 또 불이 타야 되지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땅이 외세의 혈전의 마당으로 전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慘禍를 미리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자면 우리 국회의 정치인들도 여기에 자기 몫이 있는 것 만큼 여기에 참가해야죠. 당국자도 물론 참가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무어냐? 이걸 딱 어느 행정당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조선남북은 누구나 다 이문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까 權先生이 자기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7·4 南北共同聲明……

南: 原則的인 얘기를 자꾸하니까……

北: 좀 자만히 계세요. 7·4 南北共同聲明, 南北祖國統一 大綱을 우리가 결정했지요. 最高 當局者끼리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소? 우리 외세의 간섭없이 잘 좀 나라 통일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소? 좋은 결정을 채택해 놓고 돌아서자 마자 외세는 지금 南朝鮮에 있는 外國軍隊,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군대겠습시다. 미국군대는 외세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정난걸 척척 내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南: 아니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데 외세를 왜……

北: 북남 고위당국자들이 모여서 7·4 南北共同聲明을 採擇했는데 그걸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認定 않는다 했지요. 이런식으로 실제상 좋은 결정을 채택하고 위반한건 누구냐? 實側이란 말이요.

南: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이러니 진전이 안돼요. 어디를, 할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돼요.

北: 그래서 우리 과거의 先例도 있기 때문에 당국자만…… 가만 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말 안하면 말 안하는건데 왜 그렇게 먼저 말했는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대답한단 말이요.

南: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北: 당국은 당국대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회는 국회로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採擇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當局에 영향을 주고, 또 당국에서 결정을 채택하면 다시 국회의 認准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또 받으면 좋지요.

南: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몫이 있는게, 몫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北 : 국회는 국회로서 자기 몫을 담당하고, 당국자는 당국자대로 자기 몫을 담당하자, 우리 의견이 바로 그거라 말어요. 이걸 선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南 :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누가 縮結을 할 수 있느냐?

北 : 아까 權先生 발언에서 상당히 우리를 많이 자극하는 발언을 했단말어요.

南 : 뭐 어떤 내용인데, 얘기를 해봐요.

北 : 7·4 그거 다시 읽어봐요.

南 : 7·4 공동성명의 좋은 원칙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느냐는 그거지.

北 : 실천이 아니되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말 가운데 독이 있다고, 이렇게 독소를 뽑는 이런말 하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담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절대로 자극제를 쓰지말라, 자극제를 아니쓰면 그쪽에서만 안쓰면 우리도 안써……

南 : 자극적인 걸 쓴 사실이 없고 이해부족입니다. 이해부족……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되지요.

北 : 우리가 제기할 때 우리가 남조선 체제를 모르거나 당신네 국회기능을 모르거나 이와같은 문제는 다 알지요. 연구하고 능히 국회에서 국회회담을 논의할 수 있는 근본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현실의 가장 焦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국회회담 의제로 제기한 것입니다.

南 : 周先生 보세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보는 바와같이 남과 북은 다시는 싸우지 말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자는데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의 이같은 약속과 다짐이 그동안 지켜지고 실천되었습니까? 이게 뭐 그쪽만 얘기하는 겁니까? 실천이 잘되었어요? 이게 뭐 자극적인 거예요 이게……

北 : 어떻게 돼서 실천이 안되었는가. 실천이 안된 이유로 국회회담앞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南 : 아니 이걸 가지고 자극적인 얘기라니, 뭐 잘못듣고……

南 : 양해해 주시요라니 무슨 얘기에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면 생각이 다르네요. 저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마디 해야지요. 조금 제 말씀좀 듣고 하세요.

北 : 아까 權先生의 이야기에 선언이라는 그 表現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요. 法이라는게야 規範的으로 法化하는 것도 있고, 선언이란 느슨한 形態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南 : 불가침관계는 제가 法的으로나 法制化할 수 없는 性格이요. 우리 國會로서……

北 : 法制化 안할려면 될 어떠한 形態로 하겠다는걸 協議하려면 맞게 協議하든가……

南 : 그거는 政府 當局에서 제안해 놓았는데 政府끼리 해야지요.

北 : 여러가지 政治活動도 國會가 하게 돼있거든요. 海外에 나가서는 外交活動도 한단말입니다.

南 : 外交문제는 민족의 內部問題로서 기본적인 외교활동을 지원해 주는……

北 : 민족 내부로서 하자, 말하자면 問題를 解決할 意思가 있다면 그게 문제아니라 方途를 찾을 수 있다.

南 : 불가침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國家를 代表하는 行政府 當局者끼리 만나가지고 協議를 해서 빨리

체결하도록 해라.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統一問題를 가지고 統一憲法을 制定하다 보면 그나라의 國號라든지, 國體라든지, 政體라든지, 政府의 形態 여러가지 등등 문제를 論議하다보면 여러가지 論議해야 될 게 많고 해야할 일이 泰山같아요.

그런걸 놓아두고 왜 불가침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건 政府가 政府끼리 말져가지고 우리는 政府가 서명을 해서 政府가 責任을 지고 해야 實踐力이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北: 실천은 나중일 입니다.

실천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南: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미루십시다.

조금 미뤄요. 미루고 오늘 論議해도 이게 자꾸 되질 않는데……

北: 權先生 이렇게 합시다.

내가 새로운 선물 가져왔으니까,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좀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雙方會議입니다. 思想과 制度의 差異를 놓고 우리가 아주 重要한 民族의 運命과 관련된 문제 解決하자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거 對話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되지 않는가?

互相理解와 이런 아량을 表示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가 뭘 만들어 놓지 않는가?

손뻐도 두손을 마주쳐야 소리나지요. 한 손가지고 소리납니까?

一方의 意思만 고집하고 他方의 양보만 요구하는 이런식으로 된다면 公正한 對話가 될 수 없습니다.

南: 어느것이 적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北: 그러니까 양보와 아량을 가지고 호상 알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南: 首席先生 흥분해서 말씀하시는데.

北: 보십시오. 우리가 對話에 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제기한건 불가침 共同선언을 發表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國會會談에서 하자 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잘 되자면야 그쪽에서 혹시 의견 있어도 좋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이것도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正常입니다. 정상인데, 雙方對話로서는 맞는데 온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南: 밥을 짓는데……

北: 그 문제는 해명하겠어요.

온것이 어떤 연락이 왔는가? 그곳 通知가 이걸하지 말고 이것만 합시다.

이게 정상이 아니고 쌍방 대화로서는 非正常이요, 비정상.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슨 論理的 타당성이나 리론이라든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안돼요. 아, 권고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만한 정도도 할수 없다.

우리 그쪽 國會가 뭐 發議도 하고 다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쪽 국회도 어느나라 국회나 마찬가지로 적어도 최소한 政策決定도 하고 政治활동도 하고 外 交活動도 하게 되어 있어요.

立法活動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자면 만듭시다. 그러서 우리 文件 그러지 않았어요? 성격에 맞는 文件으로 政府에 하도록 實踐的 문제를 하도록 위임하자, 우리로서는 여기서 불가침원칙에 대한 방향을 주장하자.

南: 위임합시다.

北: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도록 촉구·위임하자는 거지요. 국회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위임하자는 거지요.

공동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南: 국회에서 만들 거 뭐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아주 委任합시다.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三權이 分立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政府에 委任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分明히 아시죠 세계요.

北: 아, 그런데 民意를 代表하는 國會인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인데……

南: 각자의 機能이 있는데.

北: 강선생, 團長이 발언하고 있는데 發言 계속합시다.

이게 대화로서 대화도 道德이 있고 對話도 倫理가 있는데. 아, 우리가 제안한 건 안하고 이쪽에서 제안한 것 일방적인 걸 하자. 이게 됩니까?

北: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겁니다.

우리 人民의 意思를 代辯하는 最高人民會議에서 말하자면 심의하고 그쪽에 제기하는 겁니다. 존엄있는 제안입니다.

그쪽에서 하자는 것만하고 우리것은 안하겠다. 대화가 成事됩니까? 안됩니다. 이걸 상식입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南: 統一문제가……

北: 통일문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통일헌법 제정하자는 거 우리 反對없습니다.

그걸 합시다. 反對없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議題 하나는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

시오. 통일문제라는 것도 그렇지요. 統一憲法제정 좋은 일인데…… 좋은 일 합시다.

그러나 우리 國會議員들 모여서 앉아서 통일문제 합의하는거 좋은일 했는데. 아 이거는 機能이 어떻소, 무엇이 어떻소 하면서 할수 있는 것도 안하고 남에게 미루고……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고 합시다.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南: 좋은 贈物 가져왔다면서 한번 내보세요.

南: 이렇게 합시다. 全團長 보세요.

北: 아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提案을 내놓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 議題를 두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긴장완화 문제로서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발표할 데에 대한 문제와 統一憲法 制定할 데 대한 機構문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뭐 不可侵에 대한 문제는 行政當局에서 할 문제요 하니, 좀 일반화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즉 『北과 南사이의 緊張狀態를 완화하며 祖國統一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이렇게 단일외제로 하나로 해서 하면 어떤가?

왜 이렇게 하는가. 意圖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雙方이 내놓은 의견을 충분히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다, 不可侵이란 이런 표현을 하지말고 統一憲法이란 이것도 그대로 하지말고 좀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것도 緊張상태를 완화하는 문제에 주요한 하나의 方途로 되는데 동시에 불가침에 대한 공동선언 발표하고 조국통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쌍방이 다 걸립니다. 그쪽 統一憲法 제정도 긴장완화하는데 복무하는 것이요, 동시에 조국통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어떠냐……

南: 글세 알았는데…… 긴장상태 완화라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여러가지 남과 북의 긴장상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交流를 하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결국은 이게 議題나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그렇지요? 「조국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이렇게 하면 議題가 無議題가 됩니다. 외제가 없어요. 왜 그리냐 하면 전부 우리가 統一을 향하여 모든 努力을 집중해 나가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촉진하는 問題」 이래되면 외제없이 모든 問題를 내놓고 다 이야기 하자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北: 거기에 대한 方途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말하면 議題設定은 구체화되면 좋지요.

南: 조금은 具體化되어야지요.

北: 네, 구체화되면 좋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런데 雙方의 의사가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이렇게 일반화 하자 하는데 內的 合意를 어떻게 하느냐 부속서에 우리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祖國統一」이란 이것은 統

一憲法制定 문제를 討論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緊張緩和」 이것은 不可侵에 관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內的 합의를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南: 너무 議題가 抽象的이어서……

北: 추상적이라도 뭐 雙方의 意思를 다같이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은거지.

南: 全團長께서 議題 내놓은 것을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수석대표인 本人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의제가 없이 정치문제를 토론하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概括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라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1時間 45分 정도 했는데 의제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首席代表의 級 問題는 常任委員長級 이상에서 좀 융통성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國會議長을 首席代表로 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쪽에서 이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北: 議題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研究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의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方途가 있겠지요. 제일 좋은게야 그저 구체화하고 명백하고…… 아. 좋기야 아까 우리 처음에 設定했던 것처럼 우리 의사를 하나의 項目으로 의견을 反映하고 다음 하나는 그쪽 제안대로 놓으면 명백한데, 그쪽에서 그리 못하겠다고 하니까 一般化하고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 內的 合意는 이렇게 해 놓고 긴장완화와 관련된 문제 통일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토론한다는 것을 우리가 內的 合意를 하자는 겁니다. 기록을 그렇게 남기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南: 그중에 구체화 시키는 方法중에 하나가 統一憲法 제정을 위한 機構를 구성하는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議題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합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왜 안되나하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概括的 이어서 無議題가 되니까 의제가 없어져요.

北: 그렇게 합시다. 이거야 뭐……

北: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제안한 案대로 합시다.

北: 權선생, 지금 의제문제를 가지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하고 호상 지금 상대측 것을 理解하지 못했다고 하고……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에서는 우리 提案을 잘 연구하지 않은 것도 있고.

南: 아 거, 연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은 자꾸하지 맙시다. 연구 충분히 했어요.

北: 아니, 글썄, 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체제상 이런 차이도 있고.

南: 體制上 差異가 있어……

南: 귀측에서 연구를 하나도 안하고 왔어요. 연구를 하시고 오셔야지.

北: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議題를……

北: 그러면 좋습니다. 의제문제는 좀 미흡시다. 뒤에 좀 더 연구해서 討論합시다.

그 다음에 首席代表의 級數 문제지요?

南: 예, 그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합시다.

北: 級數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議長이 나오면 제일 좋지요. 우리 民族 重大事를 논하는데, 아, 책임자들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의 일이 바쁘다 해도 이보다 더 바쁜일이 있습니까?

南: 議長은 事實上 不可能해요……

北: 최고책임자가, 책임자가 만나야지.

北: 우리는 國會會談을 論하는 겁니다.

北: 국회의담이 잘 되면 최고책임자, 당국자가 만나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北: 자, 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副議長으로 합시다.

南: 귀측에 그런거 있지요, 예를 들면 예산심의 분과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이런 위원장으로 하면 어떨까…… 아니, 아니, 내 하나의 所見인데 그쪽에서 相應하는 사람을 내 놓으면 되는 거니까.

北: 우선 남이 봐도 그렇지요. 北과 南이 國會다, 政治機關이 모였는데 그 어디 副責任者級도 안나오고 이러면 남이 보아도 좋지 않지 않느냐……

南: 아니 뭐, 國會議長이 지명하면 되니까.

北: 議長이 나오는게 정 어려우면 副議長으로 합시다. 이거 합의되어야지 이것마저 합의가 안되면 되겠습니까?

南: 그러니까 귀측에서는 예를 들면 손성필 부의장이…… 뭐 요전에 와서 참 나한테 妥否도 전하고 갔다는데, 참 안부 좀 전해주세요.

北: 감사합니다.

南: 그런데 손성필 부의장이 적십자 중앙위원회 委員長 아니에요? 이번에 赤十字故鄉訪問團하고 公演團 왔다 갔다 했는데 團長으로 왔단 말예요. 적십자 관계 責任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분이 국회의담도 담당하고 적십자도 담당하고 이렇게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는……

北: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北: 우리는 國會會談 여기에 중 부중시킵니다.

南: 좀 현실적으로 합시다.

北: 다른 건 다 우리가 덮어놓고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南: 또 여연구 副議長만 하더라도 뭐 어디 事務局長인가 뭐 그렇게 바쁠텐데……

北: 하여튼 우리 걱정 해주는 것은 감사합니다.

南: 하여튼 가능한 지 몰라요. 우리는 좀 어려워서……

北: 그쪽에 副議長 나오고 우리도 副議長 나오고 합시다.

北: 계급은 너무 낮추지 말고…… 그래도 國會會談인데 國會를 대표할 수 있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北 : 그저, 副議長으로 낙착을 지읍시다.

南 : 이것도 안되면 나중으로 좀 미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北 : 아니, 자꾸 미루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南 : 1次會談을 서울서 하자고 아까 내가 기초발언문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北 : 그야 平壤에서 하자는 건……

물론 우리가 이會談을 받기했다고 해서 平壤에서 먼저 하자는 것은 아니고…… 물론 받기자니
까 초청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난 번 會談에서 우리가 처음 제기했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뭐
없으니까 우리가 초청합니다.

南 : 그래서 우리도 서울에서 먼저 하고 싶어요.

北 : 아 뭐, 우리가 먼저 초청했으니까 平壤에서 먼저하고 다음에 우리가 옹하면 되지요.

南 : 그거는 난 뭐 소위 내가 首席代表로서 서울서 좀 해야겠는데요.

北 : 2次會談은 서울에서 합시다.

南 : 서울이, 漢城이 그 首都 아네요?

北 : 아, 우리는 平壤이 수도지요.

南 : 난 좀 꼭 招請하고 싶어서……

北 : 아, 그러니까 1차는 평양서 하고 2차때 초청하면 되잖아요.

北 : 아, 場所문제야 국제관계를 보더라도 어느나라에서 초청을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답례를 초청하고 으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걸 보더라도 이거 뭐 다르게……

南 : 어허, 내참, 전금철단장!

내 이참 심접한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IPU총회를 서울서 좀 하겠다
요다음에 평양서하면 우리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구, 반대를 얼마나 하는지
내 그때 애먹었어요 애먹었어. 헬싱키까지 와가지고 양형섭議長까지 오서가지고 아이고 참 힘들
었어요.

北 : 그건 어떻게 됐든, 權先生 국제회의에서 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는 관계가 없지요.

南 : 아니 글세, 그렇다니까.

北 : 어떤걸 우리가…… 그쪽에서는 유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북과 남사이에서 대결에 북무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화해하는 걸로서
통일하는 걸로서 이런식으로 화해하고 그런것이 좋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北 : 내가 이야기 좀 합시다. 만 두달만에 만나서 만 두달의 기간을 줬는데 오늘 나오는게 하나 손
질한 게 없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대표들 동시 발언, 소음)

南: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오늘 우리 충분히 자유롭게 討論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담은 더 이상 지금 마주앉아가지고 해 봐야 진전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3차 회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北: 權선생! 그러니까 끝내자고 하는 겁니까?

南: 끝냅시다. 접근이 안될 것 같아요.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北: 우리는 양보를 다했는데 그쪽에서 對答을 받을 것 밖에 없습니다.

南: 양보는 무슨……

北: 우리는 대담받을 것 밖에 없습니다.

南: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번 한번에 끝낼 것도 아니고.

北: 기본은 그래요. 우리가 根本立場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세가 어떤가.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는 입장인가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좋은 原則이 있습니다. 그 밑에 쌍방의 어떤 體制나 쌍방의 부합된 論理 이걸 여기에 복종시키고 그 밑에 있는 거니까 조절할 건 조절하고……

南: 역시 雙方의 體制上의 차이로 인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北: 아! 원래, 法이라는게 별겁니까. 정치란 수단이고 필요하다면 법을 조절하고 그러나 현재는 조절 안하고도 됩니다.

南: 政治概念도 相互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北: 그쪽에서야 이미 對話를 걸고 법을 고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도 있는데 왜 못해요?

南: 무슨 法을 고쳐요?

北: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네.

그건 또 웬당 그런겁니다. 그걸 또 우리 是非하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南: 글세 오늘 회담은 2시간 가까이 했으니 끝내고 3차에 또 만나서 진지하게 의논하기로 합시다.

北: 좋은 對答을 가져오시겠습니까?

南: 쌍방이 연구를 充分히 하십시오.

北: 權선생 그러면 다음에 나오실적에 자기 입장도 바꾸고 좋은 안건을 가져오십시오.

南: 3차 회담 날짜를 한번 받아보시지요.

北: 금년안에 마무리를 지읍시다.

우리 最高人民會議에서 좋은 案을 내서 만장일치로 보냈는데……

南: 우리도 보낼 때는 125회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쌍방의 입장이 마찬가지로입니다.

北: 그 만장일치는 잘못된 겁니다.

南: 뭐가 잘못돼요? 그런 말은 하면 안되지.

北: 權선생 주장에 의하면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고 내마음에 들지 않으면……

南 : 그러지 말고 어떻게 合理的이나 하는 입장에서 기준을 놓고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잘 모르오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래서야 눈감고 아용하는 것이지 그러면 됩니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北 : 아니 우리 案이 합리적이지요.

南 : 그거야 그것은 귀측의 생각이고 우리가 合理的이요.

南 : 그러니까 原論的인 이야기, 基本的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하는 것은 다 아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끝내고……

北 : 오늘 유감스러운거는 오늘 다 合意할걸로 알고 合意書草案까지 준비해 왔는데…… 앞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合意書를 연구하십시오.

北 : 서로 연구를 해서 意見을 진실되게 나누면 合意書같은거야 쉽게 만들 수 있지요.

北 : 우리안을 받아들여도…… 좋은 贈物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北 : 쌍방에서 각각 연구하십시오.

南 : 우리 입장이 말이지요, 국회 20日부터 열려가지고 여기다 副總務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회운영문제나 여러가지가 좀 복잡한데, 議長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通報를 했으면 좋겠는데……

北 : 돌아가세요?

南 : 네. 議長하고 상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會談場所 때문에 전화했듯이 그렇게 통지를 해드릴게.

北 : 대략 언제쯤 豫見합니까?

南 : 글썽, 내가 뭐… 國會議長團하고 모두 상의를 해서…… 豫算도 통과시켜야 하고……

北 : 그쪽에서 內部사정 때문에 자주 그러는데 우리 共同 일에 대해서 좀더 중시하고 관심을 돌리고 內部야 조금 조절해야지요. 우리도 사정없이 하는지 압니까? 우리도 사정은 있습니다.

南 :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北 :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다 복종시킵니다.

南 : 우리는 또 定期國會에서는 전체 國家豫算을 다 통과시키고 해야하니까.

北 : 그러니까 하루 나왔다 가면 되지요.

南 : 또 여러가지 政黨間에 정치적 협상도 해야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고려해주세요. 내가 通知를 해드릴게.

北 : 아울러…… 사실 이거 얼마나 不便합니까?

그러니 다음 會談부터는…… 원래는 평양과 서울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주 여기서 하자고 하니까.

南 : 豫備會談은 말리 끝내야지요.

南: 장소가 굳이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토론하느냐는 게 중요하지 장소야 어디면 어떻습니까?

北: 날짜는 그저 오늘 決定하면 좋은데……

南: 우리측 입장이……

北: 우리는 10月 16日이면 좋겠습니다.

南: 10月 16日이라…… 그건 그쪽에서 提案한 날짜고……

예, 내가 알았으니까 돌아가서 議長하고 상의해서 通知해드릴게.

南: 그때면 對政府 質疑할 떤데.

北: 對政府 質疑할 때요?

北: 우리는 10月 16日입니다. 예비접촉인데 지난번에 두달 차이인데 너무깁니다.

南: 우리도 立場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세요.

南: 合意했다가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北: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場所를 우리 統一閣에서 다음에 합시다.

南: 통일각은 내가 들어보니까 施設도 새로 해야하고…… 경비관계가…… 공동경비도 不可能하다고 하던데……

집을 새로지어서 그런 모양인데 요다음에 내가 구경해드릴게.

北: 아니, 새로 지은 집이라 그쪽에서 會議하자는 것은 아니고.

南: 시설도 해야하고 뭐 상당히 複雜한 거 같아요.

北: 아, 實務的인 것은 할 수 있지요.

南: 그리고 또 공동경비가 어렵고.

北: 身邊安全은 우리가 보장하지요.

南: 신변이야 물론, 아니 會談하면서 신변걱정해서야 되겠어요?

北: 場所문제도 연락해 주겠어요? 나중에?

南: 예, 그러지요. 장소문제도 연락해주지요.

北: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내놓은 案을 연구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읍시다.

南: 자! 그럼 또 만남시다.

北: 예, 또 봅시다.

<會談終了, 雙方 人事交換後 退場>